

INVITATION
TO THE
ARTS

FEBRUARY

예술계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7 02 vol.302



Cover Story

부산문화회관 2017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카이와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스윗 발렌타인'

세계의 공연장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음악 강국
발트 3국의 공연장 이야기

반갑습니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신임 수석지휘자 김봉미

부록 프로그램 가이드

당신이 몰랐던
오페라의 유령의 숨겨진

MUSICAL

PHANTOM

박효신
PARK, HYO SHIN

박은태
PARK, EUN TAE

전동석
JEON, DONG SUK

THIS IS THE REAL

2017.3.18(토)-19(일)
오후 2시, 오후 6시 30분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 (주)공연마루 / 국제신문

찾았던
숨겨진 이야기

CAL

PHANTOM



CAL PHANTO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제작 | EMK뮤지컬컴퍼니

김소현
KIM, SO HYUN

김순영
KIM, SOON YOUNG

이지혜
LEE, JI HYE

베히즈드 압드라이모프

피아노 리사이틀

PIANO RECITAL

BEHZOD ABDURAIMOV



2017. 3. 22(수)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Beethoven '열정' | Prokofiev 소나타 6번 | Schubert '악흥의 순간' | Bach & Busoni

지휘 김봉미



3.24(금) 베르디

지휘 이동신



4.28(금) 바그너

마티네

조운범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오페라 이야기 I~IV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백진현



5.31(수) 푸치니

지휘 김주현



6.30(금) R.슈트라우스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주최



부산일보사

협찬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051) 607-6000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2017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국립부산국악원 신춘음악회

아름다운 동행

2017. 3. 2(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부 지휘 | 권성택



예술감독 | 오상아



2부 지휘 | 이정필




소리꾼 | 김용우



입 장 료 | A석 10,000원 B석 5,000원

주 최  부산문화회관

공동주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국립부산국악원

공연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전통예술 · 극단팀
051)607-3124

국립부산국악원
051)811-0114

- 1 | 국악관현악, 구음, 무용을 위한 [동래학춤: 은빛 날개의 꿈]
작곡_박영란 | 재구성 안무_오상아(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예술감독)
구음_김미진 | 춤_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 2 | 해금협주곡 Verses
작곡_토마스 오스본 | 해금_방병원
- 3 | 서용석류 태평소 시나위와 관현악
편곡_계성원 | 태평소_이종철
- 4 | 매화 봄 향기속으로
작곡_계성원
- 5 | 소리꾼 김용우와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장타령
- 6 | 팔도민요 연극
편곡_이준호 | 민요_박성희 정선희 김세윤 이은혜
김미진 신진원 신현주



무료 셔틀버스 운행

장소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시간 월~금 19:00 ※공연이 있는 날에 한함

CONTENTS

CULTURAL STORY



- 08 **커버스토리**
부산문화회관 2017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카이와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스윗 발렌타인'
- 10 **2월 공연 캘린더**
- 12 **반갑습니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신입 수석지휘자 김봉미
- 14 **2017년 속으로 특집 I**
2017년 탄생 100주년 맞는
시인 윤동주, 작곡가 윤이상
- 18 **2017년 속으로 특집 II**
2017년 미리 보는 부산의 문화예술축제
- 23 **2017년 속으로 특집 III**
2017년 개관하는 부산현대미술관, 복합문화공간 F1963
- 24 **세계의 공연장**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음악 강국
발트 3국의 공연장 이야기

BOARDS INSIDE



- 33 **프리뷰**
- 38 **리뷰**
- 40 **프로그램 가이드**

CENTER NEWS



- 50 **새로 나온 음반**
- 51 **새로 나온 책**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17년 2월호 통권 302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박인건 편집인 조요한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7년 1월 25일 인쇄처 효민디앤피 051 807 5100



01



02

2017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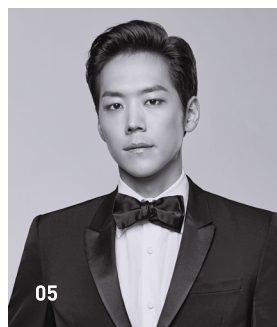
카이와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스위트 발렌타인

로맨틱한 연인들의 날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연인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가 마련된다. (재)부산문화회관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2017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카이와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스위트 발렌타인'은 '팝페라계의 성시경'이라 불리는 달콤한 목소리의 뮤지컬 배우 카이가 진행하고 '베토벤을 닮은 지휘자' 백윤학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세계 무대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문경, 아름다운 감동을 전하는 클래식 크로스오버 앙상블 인치엘로가 출연, 연인들을 설레이게 할 로맨틱한 무대를 선사한다.

이번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진행자로 부산을 찾는 뮤지컬 배우 카이는 서울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박사과정에 있는, 그야말로 실력과 외모,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까지 고루 겸비한 '성악계의 엄친아'다. 지난 2008년 디지털 싱글 '미완(未完)'으로 데뷔한 후 다수의 음반 발매 및 콘서트를 통해 음악가로서의 입지를 다져온 카이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성남아트센터가 마련한 '마티네콘서트'를 진행하면서 깊이있는 음악해설과 관객들과의 소통을 통해 클래식 대중화에도 앞장서오고 있다. KBS 1FM '생생클래식', '세상의 모든 음악 카이입니다' 라디오 진행자로 청취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클래식 마니아는 물론, 두터운 팬층까지 확보하며 DJ로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카이는 지난 2008년에는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에 출연하면서 뮤지컬에도 도전, 이후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두 도시 이야기', '드라큘라', '마

리 앙투아네트', '아리랑', '삼총사', '잭더리퍼', '몬테크리스토' 등 유명 뮤지컬 작품을 통해 가창력과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뮤지컬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다. 깊은 울림 있는 목소리,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섬세함으로 그동안 중흥무진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카이는 최근 들어 KBS '불후의 명곡', MBC '나는 가수다 2', '복면가왕' 등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폭넓게 다가가고 있다.

이번 무대를 통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추는 지휘자 백윤학은 서울과학교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공대 졸업이라는 이색적인 이력을 지닌 지휘자로, 대학교 동아리 활동 중 우연히 지휘의 매력에 빠지면서 동대학 지휘 전공으로 편입한 후 미국 커티스음악원(관현악 지휘, Diploma)과 템플대학교(오페라 코치, Master of Music)에서 음악수업을 받았다. 그동안 KBS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 부천시립교향악단, 프라임 필하모닉, 마드리 실내악단 등을 지휘한 백윤학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LA 디즈니 홀과 로시 채널러 파빌리온에서 BBCN 필하모닉과 데뷔 연주를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2015년 7월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원폭 투하 70주년 추모음악회 지휘를 맡기도 했다. 백윤학은 미국 콘서트오페라 필라델피아(ConcertOPERA, Philadelphia) 음악감독 겸 지휘자로 다수의 오페라 제작에 참여했으며, 오페라 델라웨어와 오페라 뉴저지에서 부지휘자 겸 반주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백윤학은 현재 영남대학교 기악과 조교수로



- 01 지휘자 백운학
- 02 부산시립교향악단
- 03 클래식 크로스오버 앙상블 '인치엘로'
- 04 바이올리니스트 이문경
- 05 뮤지컬 배우 카이

재직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와 예일대학교(석사), 뉴욕대학교(박사)를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이문경은 이태리 지누콜리 국제콩쿠르와 파도바 국제콩쿠르 입상을 비롯해 예일대학교 챔버뮤직 셀레브레이션, NYU 콘체르토 콤포지션, 음악저널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NYU 재학시절 전액 장학금과 클래식 현악연주자에게 처음으로 수여한 스타인하트 펠로십의 수혜자가 되는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다. 마에스트로 막심 쇼스타코비치가 지휘하는 코르도바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를 비롯해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와 베토벤 트리플 콘체르토 협연, 한·러 수교 25주년 기념 러시아 올란우데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 내한 전국투어 등 국내외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져온 이문경은 카우프만 센터 멀킨 콘서트홀에서 성공적인 뉴욕 데뷔 무대를 가진 후 미국과 서울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두 명의 테너와 한 명의 바리톤으로 구성된 클래식 크로스오버 앙상블 인치엘로는 멤버 전원이 성악을 전공한 재원으로, 정통 클래식은 물론 가곡, 가요, 팝송, 뮤지컬 넘버, CCM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세대를 아울러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크로스오버 음악'을 통해 대중과 소통해오고 있다. 그동안 1st 디지털싱글 앨범 'Merry Little Christmas', 2nd 디지털싱글앨범 '그대 그리고 나', 1st 오리지널앨범 'One Shine Day' 등을 발매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인치엘로는 이번 무대에서 세 남성이 빛어내는 감미롭고 웅장한 하모니를 통해 사랑과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프로코피예프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제2번',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2번 작품 27', 사拉萨테 '카르멘 환타지', 영화 '화양연화', '오즈의 마법사', '여인의 향기', '노팅힐', '티파니에서 아침을' 등 감미로운 영화 OST로 한 편의 영화와 같은 무대를 선사한다.

2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3만원, S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부산문화회관 VIP 회원 초대권 증정, 커플 구매시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EVENT

특별한 날, 특별한 이벤트

풍성한 이벤트로 즐기는 2017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사전 SNS 이벤트〉

청춘남녀 즉석만남, 여러분의 사랑을 찾아드립니다

'해리가 셜리를 만났을 때'

(재)부산문화회관 SNS <해리가 셜리를 만났을 때> 이벤트란에 신청

- ▶ 티켓 구매자 중 이벤트 신청자 가운데 이상형에 가까운 상대를 선별, 당일 커플석 제공

오늘은 특별한 기념일! 'My Funny Valentine!'

2월 14일이 특별한 기념일인 여러분의 사연을 부드럽고 달콤한 카이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재)부산문화회관 SNS <My Funny Valentine!> 이벤트란에 신청

- ▶ 이벤트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사연 소개

영화처럼~ 음악처럼~

BMA!(Busan cultural center Music Awards)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가슴설레게 하는 나의 인생음악을 뽑아주세요!

인생음악을 뽑은 이유 또는 사연을 함께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사연도 소개해드리며, 최고의 음악으로 선정된 곡은 음악회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 SNS <BMA!> 이벤트란에 투표 참여

[이벤트 참여방법] 페이스북 www.facebook.com/vivabsc

트위터 twitter.com/vivabsc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vivabsc

카카오톡 story.kakao.com/vivabsc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2

2017 FEBRUARY

SUN	MON	TUE
<p>전시실</p> <p>제12회 부경서도대전 - 대전시실 2월 4일(토) - 2월 9일(목) 문의 : 조상래(010-8501-8181)</p> <p>코믹스튜디오 - 대전시실 2월 25일(토) - 2월 26일(일) 문의 : 주문도(010-3852-2393)</p>		
<p>5</p> <p>대 이승환 발라드 콘서트 'Only Ballad' in 부산 17:00 13만 2천원 · 12만 1천원 · 11만원 · 9만 9천원 (주)하늘이엔티(1688-6675)</p> <p>소 서정빈&이종원 기타 리사이틀 15:00 균일 1만원/서정빈(010-9513-6025)</p>	<p>6</p>	<p>7</p>
<p>12</p> <p>대 아시아와 서양예술이 함께하는 페스티벌 14:00 17만원 · 13만원 · 10만원 · 9만원 · 6만원 부산문화(1600-1803)</p> <p>소 최남주 피아노 리사이틀 15:00 무료/최남주(010-9558-4947)</p>	<p>13</p>	<p>14</p> <p>대 부산문화회관 2017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카이와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스윗 발렌타인' 19:30 3만원 ·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9</p> <p>소 에꼴 정기연주회 16:00 무료/박현정(611-8889)</p>	<p>20</p>	<p>21</p>
<p>26</p> <p>소 맨하튼 피아노양상봉 제2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세실예술기획(02-543-6752)</p>	<p>27</p> <p>소 영남국악원 장경미 제자 발표회 2nd 19:30 무료/장경미(051-6431-6440)</p>	<p>28</p> <p>소 Love Violin & Cello 19:30 무료/이대성(010-2302-2432)</p>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1	2	3	4
1	2	3	4
	<p>대 2017 CJ문화재단 신년 콘서트 '즐겁고 행복한 동행' 20:00 무료/마이킴팩트(02-722-2035)</p>		<p>대 이승환 발라드 콘서트 'Only Ballad' in 부산 18:00 13만 2천원·12만 1천원·11만원·9만 9천원 (주)하늘이엔티(1688-6675)</p>
8	9	10	11
		<p>대 아시아와 서양예술이 함께하는 페스티벌 19:30 17만원·13만원·10만원·8만원·6만원 부산문화(1544-8808)</p> <p>소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_2017 부산시립극단 배우 워크숍 '누구니, 난?' 19:30 무료(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선착순 예매) 부산시립극단(607-3123)</p>	<p>대 아시아와 서양예술이 함께하는 페스티벌 14:00, 19:30 17만원·13만원·10만원·8만원·6만원 부산문화(1544-8808)</p>
15	16	17	18
	<p>대 (사)부산기독교총연합회 초청 월드비전 합창단 부산공연 19:30 균일 5천원/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음악원 (02-2662-1803)</p> <p>소 정준용 콘트라베이스 독주회 19:30 초대/정준용(010-5052-6829)</p>	<p>대 세계 정상의 음악가들이 들려주는 보헤미안 판타지 19:30 5만원·4만원·3만원·2만원 부산문화(1600-1803)</p> <p>소 예술 클래스 정기연주회 19:30 무료/허지나(010-5445-4474)</p>	<p>대 뮤클합창단 제11회 정기연주회 '푸치니 글로리아 미사' 19:30 균일 1만원/뮤클합창단(010-2307-6922)</p> <p>소 어썸댄스 발표회 Vol.2 18:00 균일 1만원(예매시 5천원) 어썸댄스스튜디오(913-0065)</p>
22	23	24	25
<p>대 삶 속의 요가 & 통일 이야기 18:30 선착순 무료 김영옥(010-6329-1991) 이승렬(010-9397-6751)</p>	<p>소 북콘서트 with 최진석 교수 '탁월한 사유의 시선' 14:00 균일 1만원/Plan Geeks(070-8255-5588)</p>	<p>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하는 Friendly Concert' 19:30 균일 2천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10, 3170)</p> <p>소 제10회 한행래 바이올린 클래스 앙상블 리사이틀 19:00 무료/한행래(010-9566-0368)</p>	<p>대 오륙도신문 창간 3주년 2017 희망 나눔 콘서트 17:00 균일 3만원/오륙도신문(622-4075)</p> <p>소 소녀들의 피리 이야기 19:00 무료/여은혜(010-7197-8515)</p>
3/1	2	3	4
<p>소 이은실 제자 음악회 '현을 타고 봄이 오는 소리' 19:00 무료/이은실(010-2782-1525)</p>	<p>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국립부산국악원 2017新春음악회 '아름다운 동행' 19:30 1만원·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4)</p>		<p>대 제6회 코랄하우스 100인 남성축제합창단 정기연주회 19:00 무료/김강규(010-4183-2293)</p>

단원들과 꿈꾸는 행복한 무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신임 수석지휘자

김봉미

지난해 3월 김범수 수석지휘자의 임기가 끝나면서 지난 한 해 객원지휘자 체제에서 활동을 마무리했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2017년 '무대를 아우르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 김봉미 신임 수석지휘자와 함께 힘찬 첫 발을 내딛었다.

“그동안 연주자로 매년 부산을 다녀가긴 했지만 이번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를 맡고서는 마치 부산으로 귀향한 느낌이라 할까요,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많은 가능성을 지닌 차세대 연주자들의 연주 단체인만큼 앞으로 큰 책임감과 열정으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학교 피아노과를 수석졸업한 지휘자 김봉미는 독일 에센 폴크방 국립음대 피아노과를 수석 입학하고 디플롬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피아니스트의 길을 꿈꾸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지휘자였던 아버지의 곁에서 어깨 너머로 지휘법을 터득하고 부재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연주자를 훈련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지휘자 수업을 받았던 김봉미에게 있어 지휘자로서의 길은 어쩌면 가장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이었다.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오케스트라 지휘과를 졸업하며 지휘자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김봉미는 2003년부터 독일 현지 오케스트라들과 호흡을 맞추며 실력과 명성을 쌓아오다 지난 2008년 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전임지휘자를 맡으며 국내 활동을 시작했다.

귀국 후 KBS교향악단, 대전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창원시립교향악단, 서울필하모닉, 시흥교향악단 등



수많은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 초청음악회, 오페라 등 수백회가 넘는 지휘활동을 통해 지휘자로서 명성을 쌓아온 김봉미는 특히 오페라 지휘에 큰 두각을 보이며 지난 2011년과 2012년,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에 여성지휘자로는 유일하게 참가, 2012년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지휘자상을 받으며 화제가 된 바 있다. 특히 김봉미 지휘자에게 '처음'이라는 수식어는 보통명사처럼 그를 따라다닌다. 2003년 바흐 음악의 거장인 헬무트 릴링의 스투가르트 바흐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동양 여성 최초 지휘, 2008년 문화관광부 주최 제1회 신진여성문화인상 첫 수상, 2010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제지휘콩쿠르 여성 첫 수상 등 그가 이뤄낸 업적은 수없이 많다. 지난 2011년에는 부산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선정되기도 한 김봉미는 서울필하모닉 전임지휘자, 시흥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유니티드 필하모닉 상임지휘자, 헤럴드 필하모닉 상임지휘자로 있으며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외래

66 무엇보다 단원들에게 99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2017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의 행복한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김봉미 지휘자에게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음악을 처음 시작했던 그 시절 열정과 꿈을 되새길 수 있는 자리이다. 그래서 학업과 연주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꾸준히 예술적 소양을 키워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들에게 미래를 대비한 다양한 경험과 비전을 제시하고 단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 김봉미 지휘자는 그동안 지휘자로, 교육자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쌓아온 그의 커리어를 심분 살려 단원들의 실력 향상 뿐 아니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거쳐갈 단원들에게 연주자로서의 보다 많은 길을 제시해주고 싶다.

“탄탄한 연주 실력과 더불어 그 바탕이 되는 단원들간의 융합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단원들에게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지휘로 감동과 행복을 전하는 마에스트로 카를로스 클라이버를 가장 좋아한다는 김봉미 지휘자는 무대 위 연주하는 단원이 즐거워야만 관객 역시 연주를 즐길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김봉미 지휘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첫 연주회는 4월 5일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2017년 첫 무대이자 제55회 정기연주회로 열리는 이날 무대에서 김봉미 지휘자는 베토벤 심포니 제5번,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등을 들려준다.





尹
東
柱

윤동주

시를 통한
자기 정체성과 민족 찾기

윤동주 연세대학교 한문대학 교수

우리에게 많은 시인, 작가, 문인이 있지만 윤동주만한 인물은 없다. 그의 <서시>는 초등학교들도 아는 명편이며, 윤동주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다섯 안에 어김없이 들어간다. 윤동주만큼 뛰어난 시인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사랑받은 인물은 없다. 그것은 그의 삶과 시가 다른 이들은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윤동주를 생각하면, 그가 1917년 중국 만주 용정에서 태어나 연희전문, 도쿄 릿교대학(立教大学), 교토 도시샤대학(同志社大学)을 다녔다는 것, 일제에 검거되어 1945년 2월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9세로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다는 것, 수려한 외모와 과묵한 성격, 차분하고 배려 깊은 인품 등이 떠오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단 한순간도 시(詩)를 삶에서 떼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제강점기의 다른 시인들과 달리, 윤동주는 빼어난 시를 우리 고유의 평상어로 그려냈다. 몇몇 음운만 바꾸면 지금도 그의 감정과 느낌을 고스란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 덕분이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감정과 언어를 잘 구사했다고 인정하는 백석(白石)만 해도, 그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정황, 사투리, 지금은 쓰지 않는 고유어 등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윤동주의 시에는 그런 장벽이 없다. 각주를 이해하고 감상해야 하는 백석과 달리, 쓰인 그대로 스며들 수 있는 윤동주는 다른 경지이다.

당시에 백석과 윤동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처지였다. 백석은 윤동주도 배우고자 했던 훌륭한 시인이었다. 하지만 윤동주는 살아생전 시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시집을 낸 것도 아니었다. 광복 후 강처중(姜處重), 정병욱(鄭炳昱) 등의 지인들과 주변 친지들의 노력으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유고시집이 나왔기에, 우리가 그를 시인으로 알게 되었을 뿐이다. 그의 생전에는 누구도 그를 시인으로 알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시를 출판하지 못한 시인이 시인일 수 없으니 말이다. 연희전문 졸업 기념으로 내려던 시집이 좌절된 후 그가 보여준 고뇌의 깊이는 그래서 함부로 가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동주는 죽는 날까지 시 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왜 이토록 시 쓰기에 온 정열을 불태웠을까? 한 번도 거스르지 않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면서 연희전문 '문과'에 진학한 것도, 창씨개명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일본에 건너가 학업을 지속한 것도 모두 다 시를 쓰겠다는 일념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가 쓴 시들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식민지 언어로 된 것이었고, 그렇게 쓴 시들이 인정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그래도 그는 시를 썼다. 이유는 간단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우리 고유의 언어로 시를 쓴다는 것이 그에게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우리 민족을 찾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윤동주는 디아스포라 지식인이었다. 그는 조선민족이었고 그의 말은 조선어이고 그의 글은 한글이었지만, 그가 사는 곳은 중국이었고 그가 듣는 말은 중국어이며 그에게 쓰라고 강요하는 글은 일본어였다. 그의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고 그의 나라가 있던 땅도 그에게는 익숙지 않은 낯선 곳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찾는 방법을 우리 언어에서 찾았다. 그리고 총을 들고 적의 심장을 겨누는

방법처럼 우리 언어로 시를 쓰는 것을 통해 민족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의 시들의 주옥같은 우리말과 우리 감정은 그렇게 탄생했다. 지금 보면 당연해 보이는 그의 시작(詩作)은 결코 당연하지도 평범하지도 않은 특별하고 숭고한 외침이었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서시〉’ 염원했던 그의 마음이 바로 시를 쓰는 과정과 노력, 바로 거기에 담겨 있다.

돌아해보면 윤동주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공보다는 실패의 삶을 살았다. 문학에 뜻을 두었으나 번번이 사촌 송몽규(宋夢奎)보다 한 발짝 늦었고, 학교 진학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대기만성(大器晩成)이지…….’라며 거듭 곱씹었던 것은 당혹과 좌절을 달래려는 안쓰러움 묻어나는 자위였다.

사실 그의 인생을 건조하게 바라보면, 민족 모두가 힘겹게 살수 밖에 없었던 일제강점기에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 학업을 지속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구절처럼 남 보기에 ‘부끄러운 일’인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민족운동에 직접 투신하는 자들도 있고 올분을 적극적으로 토로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의 〈쉽게 씌어진 시〉에서처럼, 자신은 창씨개명까지 해가며 먼 이국땅에 공부하러 건너와 다다미방에서 시를 쓰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야속하게도 ‘쉽게 씌어진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맞다. 그것은 아무리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라고 고뇌 어린 자책을 해도 바뀌지 않는 사실이다.

그러나 윤동주는 부끄러워할 줄 알았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기에 ‘죄다 잃어버’렸다고 자책했다. 남들 말을 들어보니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내게 있어 인생인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정말이지 ‘부끄러운 일’이라고 고백했다. 뻔뻔하게 사는 자들이 더 많고 자신까지 속이는 파렴치한이 대부분인 시대에 윤동주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줄 알았다. 그런 그였기에, 그렇게 파르르 떨리는 심정으로 고뇌와 번민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였기에, 그의 시는 별처럼 반짝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부끄럽게도 말했던, 핑계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던 ‘슬픈 천명’이 정말이지 ‘슬픈 천명’일 수밖에 없다는 가슴 저미는 공감을 이끌어내게 되었다. 그는 친일 파도 아니고 민족을 등진 자도 아니었다. 단지 자기를 찾고 민족을 찾으려 노력하며 불우한 시대를 살아간 하나의 등불이었을 뿐이다.

윤동주는 실패의 삶을 살았고 부끄럽게 살았던 것도 맞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시로 인정받지 못해도, 그는 시를 썼다. 여전히, 계속, 주눅 들지 않고, 스스로를 다독여가며, 시를 썼다. 부끄러워도, 후회스러워도, 낙심되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시인이 되었다. 그가 현실의 실패에 좌절해서 포기했다면, 낙심해서 모든 것을 던져 버렸다면, 부끄러움에 고개 숙이고 움츠러들기만 했다면, 그는 자신을 찾지 못했을 것이고 민족을 그려내지 못했을 것이다.

윤동주는 오해는 오해대로 괴로움은 괴로움대로 모두 다 끌어안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다. 무엇을 바라서도 무엇이 될 거라고 믿어서도 아니었다. 〈서시〉의 고백처럼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었던 것’이다. 그렇게 그는 시의 별이 되었다.



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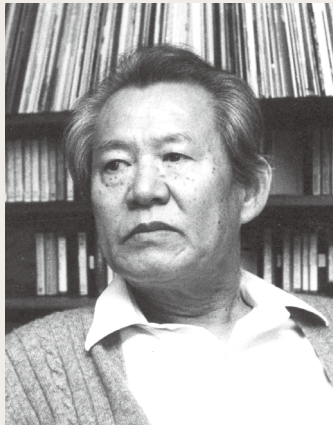


03



04

- 01 윤동주(뒷줄 오른쪽)와 송몽규(앞 중앙)
- 02 문익환(뒷줄 왼쪽)과 윤동주(뒷줄 오른쪽)
- 03 윤동주와 정병욱
- 04 윤동주의 무덤



작곡가 윤이상 음악의 뿌리
한반도 평화 · 통일 추구

윤이상 재단 · 한국문화재단 · 한국문화재단

대한민국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은 끝내 소원하던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1995년 세상을 떠났다.

생존 시 가장 중요한 5명의 현대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되어, “서양현대음악 기법을 통해 동아시아적 이미지를 탁월하게 표현했다”, “한국음악의 연주 기법을 서양악기에 완벽하게 결합시켰다”는 등의 평을 받았던 작곡가 윤이상은 고국 대한민국에서는 한낱 친북 좌파 반국가 사범으로 배척받았다.

1917년 경상남도 통영에서 출생한 그는 한국과 일본에서 첼로, 음악 이론, 작곡법 등의 음악 교육을 받고, 1948년부터 통영과 부산에서 음악교사를 역임했다. 1950년 부인 이수자 여사와 결혼한 뒤 유럽으로 건너가 파리음악원에서 수학하고(1956~1959) 이어 서베를린 음악대학에서 작곡과 음악이론을 계속 공부했다.

1959년 독일 다름슈타트 음악제에서 한국 전통 음악 색채를 담은 <7개의 악기를 위한 음악>을 발표하여 주목 받았고, 관현악곡 <예악> 등으로 유럽 음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중 1960년대 말 동베를린 사건에 휘말려 투옥된 뒤 사형 선고를 받았다. 전 세계 저명한 음악가들의 대대적인 구명 운동으로 가까스로 풀려난 뒤 독일로 돌아가 독일 국적을 취득하였다. 1972년 뮌헨 올림픽 개막 축하 오페라 <심청>을 비롯하여 수많은 작품을 통해 서구 음악계에 큰 영향을 끼쳤고, 1985년 서독 튀빙겐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1987년 바이츠젠커 전 독일 대통령으로부터 ‘대공로 훈장’을 수여 받았다.

일제시대에는 항일정신으로 무장했던 작곡가 윤이상은 동베를린 사건 이후 자신의 삶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바쳤다. 1990년 남북 화합을 위한 남북 통일 음악제를 주관하는 등 음악을 통한 운동을 병행하면서 국내외 평화와 통일 운동의 지도자 역할을 감내했다. 그러나 윤이상의 통일 운동을 대한민국 정부는 색안경을 끼고 불온시했고, 끝내 그에게 귀향을 허락하지 않았다.

1917년 9월17일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선비 출신의 윤기현(尹基鉉)과 농가 출신의 김순달(金順達) 사이에서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윤이상은 올해, 2017년 탄생 100주년을 맞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대 작곡가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정부는 윤이상 기념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삭감한다. 과연 정부가 국익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클래식 본고장인 유럽의 인식은 다르다. 세계 최고의 음악제 중 하나인 베를린음악제는 윤이상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무명의 오케스트라인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윤이상 100주년 기념 음악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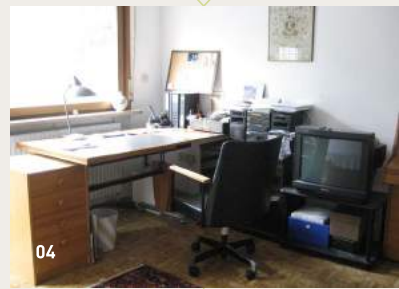
초청했고, 윤이상의 탄생일인 9월17일 하루 전체를 윤이상 작품을 중심으로 한 여러가지 음악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작곡가 윤이상의 업적을 이어가기 위해 설립된 윤이상평화재단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윤이상 100주년 기념 음악회에 맞춰 베를린의 윤이상 자택을 기념관 윤이상하우스로 개관하고, 국내에서 심포지엄과 몇몇 기념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특히 작곡가 윤이상의 삶과 음악을 좀 더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 국민들이 문화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들을 꾸준히 펼쳐 나가고자 한다.

작곡가 윤이상을 친북 좌파로 불온시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윤이상은 남과 북을 가리지 않고 조국을 지극하게 사랑했을 뿐이다. 강석희, 김정길, 백병동 등 윤이상에게 사사한 작곡가들은 귀국 후 모두 서울대학교 작곡과 교수로 후학들을 양성하며 국내 작곡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윤이상은 남한 음악계에는 기여한 바가 있으니, 북한 음악계를 위해서도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를 감사하게 생각한 북한은 윤이상음악연구소, 윤이상교향악단 등을 창립했다. 작곡가 윤이상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바쳤다.

문화 예술 사업은 당장 큰 수익을 얻거나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큰 사업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가 내세울 만한 문화 유산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꾸준히 투자를 한다면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러시아의 예를 들어 보면, 소련 시절 초기부터 차이코프스키를 자국의 문화 유산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차이코프스키 콩쿠르는 세계적인 음악 콩쿠르로 성장했고, 차이코프스키 음악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교육기관이다. 소련 시절 공산주의 정부의 철학과 더 잘 부합했을 것 같은 19세기 민족주의 음악가들인 러시아 5인조 작곡가들 대신, 서양음악 형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국제주의를 표방했던 차이코프스키를 러시아의 대표 작곡가로 내세웠다. 이런 판단을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다.

작곡가 윤이상은 특히 유럽 등 선진국이라 불리는 서구 사회에 더욱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 유산이다. 윤이상 국제음악제가 소도시 통영의 지역 경제와 지역의 위상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만 해도 작곡가 윤이상의 가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작곡가 윤이상 탄생 100주년, 우리나라 전체가 함께 만들고 누려야 할 중요한 한 해다.



01 화가 백남준과 함께
02 윤이상
03 04 베를린 윤이상 자택

아는 만큼 즐겁다! 365일 풍성한 문화난장

2017년 미리 보는 부산의 문화예술축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부산은 1년 365일 다채로운 문화예술축제가 펼쳐지는 문화관광지로서도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2017년 올 한 해도 부산에서는 눈과 귀를 사로잡는 다양한 문화예술축제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붉은 닭'의 해 정유년을 맞아 보다 풍성해진 문화예술축제 속으로 미리 떠나보자.



봄의 시작을 알리는 다채로운 무대

2017년 부산문화계의 시작을 알리는 전령사는 바로 부산연극제와 부산국제연극제. 매년 봄 펼쳐지는 부산연극 최대 축제인 부산연극제는 대한민국연극제 부산예선대회를 겸한 자리로, 부산연극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극단은 6월에 열리는 대한민국연극제에 부산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올해로 35회를 맞는 부산연극제는 창작초연작들의 경연무대인 'IN부문', 소극장 연극의 활성화를 위한 'OFF부문', 부산시민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가는 '부산시민연극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제34회 부산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표풍(飄風)'은 청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연극제에서 단체부문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4월 부산연극제가 끝나면 5월에는 매년 새로운 컨셉으로 세계 각국의 연극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제작, 문제작을 선보이는 부산국제연극제가 관객들을 찾아가는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부산국제연극제는 세계 각국의 우수작품을 초청해 선보이는 'CONCEPT' 부문과 세계 유명 공연예술축제에 참가할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경연 프로그램 'Go World Festival', 그리고 공연 단체의 참여 기회 확대와 더욱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자유 참가공연 프로그램 'Dynamic Fringe' 등을 통해 매년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여왔다. 특히 세계 유명 축제에 참가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Go World Festival'은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페스티벌에서 아시아 부문 최우수 작품상을 받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으면서 매년 참가팀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 단편영화제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BISFF: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는 오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영화의전당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35회를 맞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지난

1980년 한국단편영화제로 첫발을 내딛은 후 2002년 아시아부산단편영화제를 거쳐 2010년부터 부산국제단편영화제로 확대, 개편되면서 그동안 세계적으로 새로운 단편영화들의 경향을 소개하고 국제적으로 재능있는 감독들을 발굴하는 한편 관객들과 호흡하는 활발한 축제의 장을 만들어왔다. 특히,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경쟁부문 수상작이 부산국제단편영화제와 인연을 맺은 해외 단편영화제에 소개되면서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한국 단편영화의 해외 진출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오고 있다.

6월에는 음식과 영화를 테마로,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영화축제 '두레라움 음식영화축제'가 펼쳐진다. 지난해 '제2회 서울국제음식영화제'와 공동으로 마련된 '두레라움 음식영화축제'는 영화의전당이 엄선한 음식영화 상영을 비롯해 스타 셰프, 음식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토크, 푸드트럭을 통한 다양한 먹을거리,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의 뜨거운 호평을 받았다. 올해는 2017 부산음식영화축제로 이름을 바꾸고 6월 2일부터 6일까지 영화의전당에서 펼쳐진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휴양지 페스티벌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부산국제무용제(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BIDF)도 6월 중 해운대해수욕장과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지난 2005년 부산국제해변무용제로 첫 발을 내딛은 부산국제무용제는 2008년 부산국제무용제로 명칭을 바꾸고 그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장르,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여왔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는 세계무대의 주역이 될 안무가를 발굴하는 AK(Art Korea)21 국제안무가 육성 공연을 가져오면서 실력있는 젊은 안무가들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지난해 6월 3일부터 사흘간 열린 제13회 부산국제무용제에서는 '춤추는 부산, 흥겨운 세상(Discover Busan, A delightful universe of dance)'이라는 주제로 국내 무용단체를 비롯해 덴마크, 미국, 불가리아, 스페인,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인도, 일본, 중국, 프랑스 등 11개국 57개 무용단이 참가,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을 비롯한 탱고, 힙합, 민속무용 등 다양한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춤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선사하면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 6월 1일부터 5일간 벡스코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로 성장한 아트부산 2017이 개최된다. 지난해 현대미술의 진수를 선보인 아트부산 2016에서는 국제 아트페어라는 명성에 걸맞게 18개국, 77개 해외 갤러리들이 참가, 행사기간인 5일동안 5만4천여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방문하면서 아트부산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작품 판매 역시 큰 성과를 거두면서 30여 개의 메이저 화랑을 중심으로 다니엘 뷔렌, 장 미셸 오토니엘, 쉰 샤오바이, 장 마리 해슬리 등 고가의 작품 판매가 줄을 이었으며 특히 313아트프로젝트에서 선보인 프랑스 개념미술 작가 다니엘 뷔렌은 내년 부산시립미술관 전시를 앞두고 부산 컬렉터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여름도시 부산을 빛내는 뜨거운 축제

싱그러운 여름으로 접어드는 7월이면 국내 유일의 어린이영화제로 사랑받아온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BIKI: Busan International Kids & Youth Film Festival)가 펼쳐진다. 미디어의 범람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영상문화를 인지 시키고 영화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지난 2005년 프레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첫걸음을 내딛은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영화제는 2014년까지는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로 운영해오다 10주년이 되던 지난 2015년,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면서 가족 중심의 대중적 영화축제로 거듭났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11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 영화제'에서는 '달라도 좋아(We are All Unique)'라는 주제로 획일화된 교육,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의 다양한 영화적 감 수성을 표현하고 느낄 수 있는 전 세계 20여 개국 140여 편의 작품을 초청, 상영해 많은 호평을 받았다. 올해는 7월 12일부터 18 일까지 영화의전당에서 펼쳐진다.

부산지역 창작무용 활성화를 위해 매년 펼쳐지는 무용 예술가들의 축제이자 경연장인 부산무용제 2017년 무대도 7월 중 부산문화회 관에서 펼쳐진다. 창작무용 경연을 통해 지역의 전문 무용단체와 무용인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제공해온 부산무용제는 10월에 열리는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부산대표팀을 선발하는 부산의 중요한 무용행사 중 하나로 전통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매년 부산의 실력 있는 무용팀들이 참가해 경연을 펼쳐오고 있다.

8월이면 여름도시 부산을 알리는 부산바다축제가 개막한다. 여름 하면 떠오르는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로, 부산의 주요 해수욕장에서 매년 8월 개최된다. 지난 1996년 시작된 부산바다축제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이색적인 체험 행사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온 국



내 피서객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도 한여름 밤바다에서 축제의 향연을 즐길 수 있어 매년 여름 피서객들에게 수많은 추억거리를 주고 있다. 특히 21회를 맞았던 지난해부터는 관람객들의 참여가 중심이 되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거듭나면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부산을 찾기도 했다. 올해 역시 휴가철인 8월 1일부터 7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산의 주요 해수욕장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뜨거운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는 '부산록페스티벌'도 8월 26일부터 사흘간 삼락생태공원에서 펼쳐진다. 바다와 젊음으로 상징되는 부산의 지역색과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록 음악을 콘텐츠로 국내 최장수 록 페스티벌이라는 영예를 이어 가고 있는 '부산록페스티벌'은 지난 2003년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처음 개최된 후 2012년부터는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리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정상 밴드에서부터 세계 각국의 록 밴드,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인디 밴드들과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아마추어 밴드까지 최고 수준의 연주 및 공연이 펼쳐지면 서 록 마니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부산록페스티벌은 특히 별도의 티켓을 판매하지 않는 무료공연으로, 매년 여름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록의 바다에 빠져오고 있다.

놀라운 매직의 세계를 선사해온 아시아 최고의 마술축제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은 8월 초 관객들을 찾아가는다. 지난 2006년 첫발을 내딛은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은 국내



외 유명 매지션들과 아마추어 매지션들이 함께 참여, 매직인구의 저변확대와 국제화를 통해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행사 10주년을 맞은 지난 2015년에는 부산이 핀란드 헬싱키를 제치고 2018년 세계마술올림픽(FISM)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세계 마술계에 한국의 이름을 드높이기도 했다.

아시아 최초, 최대의 국제코미디페스티벌로 2013년에 첫 발을 내디딘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BICF: Busan International Comedy Festival)은 8월 말 영화의전당에서 펼쳐진다. 세계 3대 코미디 페스티벌인 유럽의 '에든버러프린지 페스티벌', 아메리카의 '몬트리올 코미디 페스티벌', 오세아니아의 '멜버른 코미디 페스티벌'을 잇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코미디 페스티벌을 향해 빠른 성장을 거듭해온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은 남녀노소 모두가 어울려서 즐길 수 있는 웃음, 관객과 아티스트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웃음의 무대를 선보여왔다.

가을에 펼쳐지는 풍성한 국제무대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에는 그 어느때보다 국제적인 행사가 풍성하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8월 말에는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클래식 향연 '부산마루국제음악제'가 열린다. '마루'는 '파도가 일 때 치솟은 물결의 꼭대기, 산 위의 정상'이라는 뜻을 지닌 순수한 우리말로, 지난 2010년 첫 선을 보인 후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축제를 지향하며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다. 지난해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부산문화회관을 비롯한 부산 전역에서 열린 제7회 부산국제마루음악제는 '프롬나드(Promenade)'라는 주제로 20여 개국 500여 명의 연주자들이 참여해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선사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청중들과 함께하는 음악축제를 위해 부산지역 내 학교를 찾아가는 아웃리치 콘서트와 음악제 기간 중 송상현 광장 및 시내 일원에서 펼쳐지는 프롬나드 콘서트를 통해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콘서트홀이 아닌 관객들을 직접 찾아 수준 높은 음악선물을 선사하면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 부산바다미술제도 올해 9월 다대포해수욕장에서 개최된다. 부산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인 바다와 최첨단 현대미술의 조화를 통해 독특한 전시 양식을 구축해온 부산바다미술제는 지난 1987년 88서울올림픽의 프레올림픽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시작된 후 1996년까지 매년 해운대해수욕장과 광안리해수욕장을 주요 개최장소로, 대중적이면서도 특색있는 야외전시를 선보여왔다. 2002년 부산비엔날레 탄생과 함께 부산비엔날레에 통합되어 개최되어 오던 바다미술제는 2011년부터 부산만의 독특한 해양환경미술축제로 육성하고자 부산비엔날레가 개최되지 않는 홀수 해에 독립 개최되며 부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미술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0월에는 영화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된다. 국내 최초의 국제영화제이자 아시아에서도 최대 규모의 영화제로 손꼽히는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 1996년 제1회 영화제를 시작으로 올해로 22회째를 맞으면서 명실상부 아시아 최고 영화제이자 세계적인 영화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 2년간 성장통을 겪으며 지난해 영화제에서는 영화제 개최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으나 세계 69개국 299편의 작품이 상영되고 16만 5천여 명이 넘는 관객들이 영화제를 찾으면서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영화의전당에서 펼쳐진다.

합창을 통해 지구촌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대규모 합창 축제 '2017 부산국제합창제'도 10월 관객들을 찾아간다. 지난 2002년 부산국제합창올림픽을 시작으로 2005년 APEC 합창제를 거쳐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합창제로 성장한 부산국제합창제는 다양한 합창단들이 뽑아내는 개성적이고 알찬 연주에 매혹돼 합창 마니아는 물론, 일반 시민도 즐겨 찾는 부산의 대표적인 음악축제이다. 지난해 열린 제12회 부산국제합창제에서는 국내 18개 합창단 1,000여 명을 비롯해 10개국 19개 합창단 600여 명이 부산을 찾아 클래식(혼성·동성)에서부터 민속음악, 팝·가스펠, 청소년 음악까지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했다.

지난해 아시아 최대의 한류문화축제로 열렸던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BOF) 두 번째 행사도 10월 중에 열린다. 부산이 갖고 있는 문화, 관광 인프라와 한류 콘텐츠, 아시아 문화가 만나는 새로운 개념의 한류축제인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은 아시아와 세계의 젊은이들이 만나 K팝, K푸드, K뷰티 등 다양한 장르의 한류 콘텐츠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한류축제이다. 특히 지난해 열렸던 제1회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은 한류스타가 총출동했던 개·폐막 공연에만 외국인 관람객 2만 명을 비롯해 총 6만 명이 찾아 행사기간동안 관람객 25만 명을 유치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한편 'Asia Is One'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아시아 정상급 가수들의 음악축제 '2017 아시아 송 페스티벌' 역시 10월 중 예정되어 있어 10월에는 전 세계 한류팬들의 발걸음이 부산으로 향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부산예술회관에서는 부산문인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세계문학축제인 부산국제문학제가 펼쳐진다. 지난

2012년 시작된 후 올해로 6회를 맞는 부산국제문학제는 부산문인협회 주최로 시인, 소설가, 연극연출가, 수필가 그리고 문학교수들이 벌이는 국제 축제의 한마당으로 학술심포지움, 문학작품읽기, 도서 전시회, 국제시 낭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문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과 문화를 선보이는 종합예술의 대항연 제55회 부산예술제도 10월 중 막이 오른다. 부산예술제는 지난 1963년 부산시의 직할시 승격을 경축하기 위해 시작된 종합예술축제로, 1966년 부산종합예술제를 거쳐 1978년 부산예술제, 1980년 부산무대예술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0년부터 다시 부산예술제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예술제 초창기에는 무대 예술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되어 오다 2000년부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산하 10개 단위 협회 별로 고유한 성격과 특성에 맞는 페스티벌로 개최해 오고 있다.

한 해 동안 부산에서 제작된 독립영화들을 한자리에 모아 부산독립영화의 성과와 제작경향을 살펴보는 부산독립영화제(Independent Film Festival BUSAN)는 11월 막이 오른다. 지난 1999년 발족한 부산독립영화협회 출범준비행사로, '메이드인부산독립영화제'로 시작된 부산독립영화제는 지난 2001년부터는 부산독립영화협회 소속 감독 뿐 아니라 영화학교 학생 졸업작품과 고등학생 작품까지를 아우르는 영화제로 그 영역을 확대했으며, 2009년부터는 경쟁영화제로 다시 한번 변화를 꾀한 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들만 상영하기 시작했다. 메이드인부산독립영화제는 애초 부산 지역의 독립영화를 소개하고 지지하기 위한 고유한 장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영화만으로 공모를 받고 경쟁 섹션을 꾸려가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 독립영화제로 자리잡았다.

컨템포러리 아트의 중심지

부산현대미술관 2017년 개관

- 2017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F1963'
- 부산오페라하우스도 2017년 공사 착수



2017년 하반기에는 문화불모지였던 서부산권에 부산현대미술관이 개관한다. 2월 준공을 앞두고 부산시가 직접 운영을 맡기로 하면서 부산시립미술관에 이은 부산의 두 번째 공립미술관이 된 부산현대미술관은 오는 11월 사전 개관에 이어 내년 3월 정식으로 개관한다.

사하구 을숙도에 들어서는 부산현대미술관은 서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이자 새로운 미술공간으로 공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2만9천900㎡ 부지에 건물면적 1만5천290㎡,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서는 부산현대미술관은 지하에는 지역예술가들과 시민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신진작가들의 실험적인 문화플랫폼의 역할을 할 커뮤니티 전시실과 도서실, 수장고가 들어서며 지상 2, 3층에는 최신 경향의 현대 미술을 소개하고 기획전 및 해외특별전이 열리는 글로벌 프로젝트 전시실이 조성된다. 이밖에 지상 1층에는 갤러리 카페와 아트숍 등이, 지상 2층과 3층에는 강의 실과 체험실, 세미나실, 문화정보센터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부산현대미술관은 기존 부산시립미술관과는 달리 그 이름처럼 '동시대 미술' '오늘날의 미술'을 뜻하는 컨템포러리 아트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순수미술을 비롯해 영상, 디자인, 공예, 건축, 패션, 뉴미디어아트, 설치 등 융·복합한 콘텐츠를 소개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사하구와 젊은 세대가 유입될 강서구의 전체 세대를 아우르는 커뮤니티 문화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친화적이고 문턱이 낮은 미술관'을 지향하는 한편, 미술관이 위치한 을숙도의 자연, 환경, 생태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Glocal) 미술관으로 운영된다. 국내외 연구소와 미술관, 연구센터, 대학, 교육청 등

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융·복합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협력네트워크 기반의 국제 교류 및 융·복합 전시를 소개하고 이밖에 격년제로 열리는 부산비엔날레 전시관으로서도 제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최근 부산미술협회가 '제43회 부산미술대전'의 전시장소를 부산현대미술관으로 결정하면서 9~10월경에 열리는 부산미술대전이 부산현대미술관의 첫 전시가 될 예정이다.

고려제강 옛 수영공장을 리모델링해 지난해 부산비엔날레 전시장으로 사용했던 'F1963'도 올해 하반기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지난 1963년 문을 연 후 2008년까지 50년 넘게 산업용 와이어로프를 생산했던 고려제강 옛 수영공장은 폐쇄되었던 빈 공간이 지난 2014년과 2016년 부산비엔날레 특별전시장으로 사용되면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최근 부산시와 고려제강이 'F1963 무상사용 협약식'을 체결하면서 'F1963'은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올 연말쯤 공연장과 전시실, 교육공간, 도서관, 서점 등 다양한 공간이 들어서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한다. 개관에 앞서 우선 3월에는 인터넷 전문서점인 예스(YES)24가 운영하는 중고객 서점이 들어설 예정이라 그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부산오페라하우스도 올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오는 2020년 북항재개발지구에 들어서는 부산오페라하우스는 1,800석 규모의 대극장과 전시실, 야외공연장, 편의시설을 갖춘 대형 공연장으로 오페라, 뮤지컬, 발레 등 고품격 공연을 전문적으로 선보인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음악 강국
발트 3국의 공연장 이야기

글·사진 이상훈 드림원정대 대표



라트비아 리가 오페라극장



▲ 리투아니아 오페라 극장
 ▼ 리투아니아 국립 필하모니아 홀

유럽 여행이 보편화된 지는 오래되었다. 직장인부터 시니어까지 전 세대에 걸쳐 유럽여행을 다닐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젊은 대학생들이 배낭여행을 떠나는 일도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예산과 일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서유럽이나 동유럽 또는 파리나 로마 등을 찾는 일정이 가장 일반적인 입문 코스이다. 혹시 클래식 음악을 즐긴다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를 우선적으로 찾을 수도 있고, 미술을 즐긴다면 프랑스가 먼저일 수도 있다. 아니면 여름시즌 축제일정에 맞추어 해당 도시여행을 할 수도 있고, 런던에서 뮤지컬을 즐길 수도 있다. 이후 몇 차례 여행의 커리어가 쌓이다 보면 가보지 않은 나라와 도시를 섭렵해보고자 할 것이다. 꼭 정해진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서유럽, 동유럽 등을 돌고 나면 마지막으로 북유럽을 찾게 된다.

하지만 발트 3국-지정학적 위치로 발트해 남동해안에 위치해 있는 리투아니아(Lithuania), 라트비아(Latvia), 에스토니아(Estonia)를 가르킨다-은 일반적으로 그리 쉽게 찾아지는 지역은 아니다. 북유럽을 여행한다고 해도 배를 타고 헬싱키에서 이동해야 하며 러시아로 들어간다고 해도 모스크바와는 제법 거리가 있다. 게다가 49개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과 비자협정이 되어 있지 않은 벨로루시를 지나쳐야 한다. 필자 역시 지난 수년간 40여 개국 가까이 방문했던 유럽 내 국가 중 가장 뒤늦게야 이 지역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관심 밖으로 뒤편 할 나라인가?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요즘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이 지역 출신 음악가를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으며, 최고의 공연장들이 발트 3국 주요 도시마다 하나둘 이상 자리하고 있다.

먼저 동시대에 활동하는 지휘자 중 최고의 지휘자라고 할 수 있는

마리 얀손스(Mariss Jansons)가 바로 라트비아 리가(Riga) 출신이며, 독일 명문오케스트라 게반트하우스의 음악감독에 부임된 신에 안드리스 넬손스(Andris Nelsons) 역시 리가 출신이다. 마에스트로 네메 예르비(Neeme Järvi)는 에스토니아 탈린(Tallinn) 출신으로, 우리에게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으로 알려진 HR 헤센 방송교향악단의 음악감독 파보 예르비(Paavo Järvi), MDR 중부독일 방송교향악단의 크리스티앙 예르비(Kristjan Järvi)까지 예르비 3부자 모두 탈린 출신인 셈이다. 이같은 사실을 통해 발트 3국의 클래식 공연 저변과 음악교육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공연장 시설은 또 어떠한가. 먼저 리투아니아 수도 빌니우스(Vilnius)에 있는 리투아니아 국립 오페라 발레극장(Lithuanian National Opera and Ballet Theatre:LNOBT)은 1974년 완공되었으며 주로 서구의 오페라와 러시아 오페라, 발레가 공연된다. 또한 빌니우스 음악축제가 해마다 열리면서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이 기간 빌니우스를 찾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달 초 빌니우스 음악축제에서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가 참석하기도 했다.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Riga)는 1782년 이미 독일어 오페라를 하는 극장이 존재했을 만큼 전통이 있는 도시이다. 1893년에는 라트비아어 오페라를 만드는 시도를 했으며, 1912년 본격적으로 오페라 컴퍼니가 설립됐다. 하지만 세계대전이 일어난 기간 동안 오페라 컴퍼니가 러시아로 대피, 현재 모습의 라트비안 국립오페라(Latvian National Opera:LNO)는 1995년 이후 리노베이션된 모습이다. 지난해 6월 찾아간 리가에서는 라트비안 국립오페라의 베르디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었는데, 오페라 '리콜레토', '라 트라비아타'와 함께



01

- 01 에스토니아 출신의 지휘자 파보 예르비
- 02 에스토니아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한여름밤의 꿈'
- 03 라트비아 국립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 04 에스토니아 콘체르트홀
- 05 익살스러운 주차장 차단기

베르디 빅3로 꼽히는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를 만날 수 있었다. 역시 명불허전, 오페라 가수의 실력과 연출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유럽의 어느 오페라 극장 못지 않았으며 극장 시설 역시 나무랄 데가 없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발트 3국 중 리가의 공연장 시설과 인프라가 가장 앞서는 것 같았다.

에스토니아 탈린에 위치한 에스토니아 국립 오페라극장(Estonian National Opera)은 콘체르트하우스(Konserthaus)와 나란히 도심 중앙에 서 있는데 그 규모와 위용이 대단하다. 이 극장은 건축물인 동시에 동명의 오페라단이기도 한데 오페라, 발레, 오페레타, 뮤지컬 등을 상시 공연하며 이를 주관하는 예술단과 스태프 등 500명 이상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에스토니아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Estonian National Symphony Orchestra: ENSO)가

이곳에 상주해 있으며 소비에트 시절부터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아놀드 쇤베르크, 안톤 베베른, 칼 오르프 등 현대 작곡가들의 연주로 정평이 나있기도 하다.

지난해 6월 여행 일정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공연은 발트 3국 여행 마지막 날 만난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무대였다. 단언컨데 지금껏 클래식 연주라는 카테고리에서 만난 가장 혁신적인 연주였다. '한여름밤의 꿈'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음악극이라 보통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연극배우들과 협업으로 공연되곤 하는데 ENSO가 콘체르트하우스에서 보여준 이날 연주는 실험적인 연출로 단순 연주회가 아닌 침단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먼저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무대에 배치, 대신 객석 1층의 중앙을 퍼포먼스를 하는 무대로 꾸며 마치 마당극처럼 'ㄷ'자로 관람석을 배치했으



02



03



04



05

27

며 그 위에 대형 스크린 역할을 하는 원형 볼을 두고 사방에서 프로젝트를 쏘아 배우들의 액션과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효과장치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들려주는 음악과 함께 실시간 영상으로 볼 수 있게 했다. 특별히 영상을 어안렌즈로 촬영, 평면이 아닌 구에다 화면을 쓰는 덕분에 객석 어느 위치에서도 음악과 영상을 함께 볼 수 있었다. 공연장에서 직접 공연을 보면 영상으로서는 느낄 수 없는 생생한 현장감을 경험할 수 있지만 무대의 연주자(배우)들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는 없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관계인데 이번 연주회에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 있었다. 그것도 클래식 연주회라는 틀 안에서 말이다. 실험적이라는 말은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 자신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발트 3국을 여행하면서 만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공연장과 공연단체들은 충분히 기대 이상이었으며, 이미 잘 알려진 서방의 어느 공연장 못지 않았다. 최근 활약하고 있는 발트 3국 출신 음악가들도 천재들이 아니라 그들이 이룬 문화적 인프라에서 나온 노력의 성과물임을 알 수 있었다.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이 지역의 놀라운 성과를 미리 알지 못했음이 부끄러울 정도였다.

설원을 울리는 재즈와 클래식 of 향연

2017 평창겨울음악제

PyeongChang Winter Music Festival



2월 15일(수)-19일(일)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

평창겨울음악제 운영실
033-240-1360-3
www.musicpyeongchang.com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일년 앞둔 평창의 설원이 음악으로 가득 채워진다. 평창대관령음악제가 지난해 겨울 야심차게 첫 선을 선보인 겨울음악제인 2017 평창겨울음악제는 일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에 앞서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최정상급 음악인들을 초청, 클래식에서부터 국악, 대중음악, 재즈를 아우르는 문화올림픽의 면모를 보여준다. 특히 이번 평창겨울음악제는 거슈윈, 굴다, 빈스타인 등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작곡가들의 대표작을 비롯해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불멸의 재즈 거장 텔로니우스 몽크(TheLionious Monk)의 명작들로 채워지면서 재즈의 깊은 감동이 설원을 울릴 예정이다.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총 7차례 음악회에서는 세계적인 재즈연주자들과 함께 국내의 정상급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채운다. 우선 2017년 그래미상 2개 부문 후보에 오른 재즈계의 거장 존 비즐리(John Beasley)가 음악제 메인 아티스트로 다섯 차례 무대에 오른다.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재즈 피아니스트이면서 편곡과 세션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활동을 펼치고 있는 존 비즐리는 그동안 마일스 데이비스(Miles Davis), 세르지오 멘데스(Sergio Mendes), 포플레이(Fourplay), 알 자로(Al Jareau), 샤카 칸(Chaka Khan), 바브라 스트라이젠드(Barbra Streisand), 제임스 브라운(James Brown) 등 세계 톱 아티스트들과 함께 장르를 넘어선 연주활동을 펼쳐왔으며 재즈를 기반으로 펑크(Funk)와 소울(Soul), R&B가 유연하게 결합된 앨범 작업을 선보여 왔다.

이번 무대에서 존 비즐리는 클래식, 블루스, 비밥(Bebop)에서부터 현대재즈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작품세계를 선사할 개막 콘서트(15일)에 이어 16일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보컬리스트 웅산과 존 비즐리가 창단한 재즈밴드 '몽케스트라'와 함께 뉴올리언즈 스타일(New Orleans flavor), 힙합(Hip hop), 아프로-쿠바 리듬(Afro-Cuban rhythms) 등 분위기 있는 색깔의 새로운 시도와 유머를 곁들인 음악을 들려준다. 17일에는 비즐리를 포함한 7명의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셉텟(Septet)'이 펼쳐지며, 18일에는 존 비즐리와 대릴 존스, 진 코이가 의기투합해 결성한 그



룹 '3 브레이브 소울스(3 BRAVE SOULS)'가 핑키한 매력의 음악을 선보인다. 대릴 존스는 전설적인 그룹 롤링스톤즈(Rolling Stones)의 베이스 주자이자 마돈나(Madonna), 스팅(Sting), 에릭 클랩튼(Eric Clapton), 허비 행콕(Herbie Hancock) 등 전설적인 아티스트와 함께 작업해 온 명인이다. 음악제 마지막 날인 19일 폐막콘서트에서는 존 비즐리가 다시 한번 웅산과 협연무대를 갖는다. 존 비즐리는 최근 웅산의 데뷔 20주년 기념 미니앨범인 'Jazz is My Life'를 프로듀싱했으며, 이 앨범에 수록된 'Beautiful Arirang'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극찬한 바 있다.

클래식 무대는 영 스타들의 눈부신 재기로 채워진다. 워싱턴 인터내셔널 음악콩쿠르에서 1위를 거머쥔 소프라노 매기 피네건(Maggie Finnegan)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피아노 듀오 '앤더슨 앤 로(Anderson & Roe)', 주빈 메타, 정명훈 등 세계적인 지휘자와 협연하며 독보적인 재능을 선보이고 있는 첼리스트 이상 엔더스(Isang Enders), 2011년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준우승에 이어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가로 성장한 피아니스트 손열음,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다수의 국제 콩쿠르를 석권한 비올리스트 이한나, 클리블랜드 국제콩쿠르 등에서 입상하며 두각을 드러낸 피아니스트 김규연, 2014년 UNISA 국제 플루트 클라리넷 콩쿠르 우승자 클라리네티스트 김상윤 등이 관객과 만난다.

17일 무대에서는 실내악 위주의 작품들로 채워진다. 베토벤의 '클라리넷, 첼로, 피아노를 위한 삼중주'는 클라리네티스트 김상윤, 첼리스트 이상 엔더스, 피아니스트 김규연이, 네 손을 위한 슈베르트의 '알레그로'는 피아니스트 손열음, 김규연의 눈부신 협연으로 펼쳐진다. 거슈윈의 재즈풍 노래들은 소프라노 매기 피네건이 피아니스트 손열음의 연주로 들려주며 월튼의 '피아노 삼중주'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비올리스트 이한나, 이상 엔더스,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규연의 멋진 앙상을 연주로 들려준다.

18일 무대는 지휘자 김광현이 이끄는 원주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갈라 콘서트로,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이 라벨의 '치간느'를, 첼리스트 이상 엔더스가 프리드리히 굴다의 첼로 협주곡을, 매기 피네건이 번스타인의 '온더타운' 모음곡을, 그리고 손열음이 거슈윈의 재즈 피아노 협주곡 '랩소디 인 블루'를 연주하면서 클래식과 재즈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매력적인 선율로 대관령의 겨울 밤을 가득 채워준다.

이밖에 음악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콘서트는 2월 15일 오후 6시 '재즈와 클래식'이라는 테마로 펼쳐진다. 평창겨울음악제 예술감독인 첼리스트 정명화와 한국을 대표하는 판소리 명창 안숙선,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연주하는 '판소리, 첼로, 피아노와 소리북을 위한 세 개의 사랑가(임준희 곡)'를 시작으로 존 비즐리의 솔로무대, 그렉 앤더슨과 엘리자베스 조이 로로 구성된 '앤더슨 앤 로'의 피아노 듀오무대가 마련된다.

2월 19일 오전 11시 열리는 폐막콘서트에서는 소프라노 매기 피네건, 클라리네티스트 김상윤, 피아니스트 김규연이 들려주는 슈베르트의 '바위 위의 목동'에 이어 존 비즐리 솔로 리사이틀&게스트 웅산의 무대로 5일간의 화려했던 무대의 막을 내린다.

주요 일정

2월 15일(수) 오후 6:00 개막콘서트 '재즈와 클래식'

정명화(예술감독, 첼로), 안숙선(판소리), 손열음(피아노), 존 비즐리(재즈 피아노)

2월 16일(목) 오후 7:30 재즈콘서트

웅산 밴드, 몽케스트라(존 비즐리, 대릴 존스, 진 코이, 밥 셰퍼드, 르마기야리, 톰 루어, 돈테 윈스로)

2월 17일(금) 오후 5:00 클래식콘서트-실내악

임지영(바이올린), 이한나(비올라), 이상 엔더스(비올라), 손열음(피아노), 김규연(피아노), 김상윤(클라리넷), 매기 피네건(소프라노)

2월 17일(금) 오후 9:00 재즈콘서트

3 브레이브 소울스(존 비즐리, 대릴 존스, 진 코이)

2월 18일(토) 오후 3:00 클래식 콘서트-협주곡

임지영(바이올린), 이상 엔더스(비올라), 손열음(피아노), 매기 피네건(소프라노), 원주시립교향악단(지휘/김광현)

2월 18일(토) 오후 9:00 재즈콘서트

7인조 '셉텟'(존 비즐리, 대릴 존스, 진 코이, 밥 셰퍼드, 르마기야리, 톰 루어, 돈테 윈스로)

2월 19일(일) 오전 11시 폐막콘서트 '클래식과 재즈'

매기 피네건(소프라노), 김상윤(클라리넷), 김규연(피아노), 존 비즐리 솔로 리사이틀 & 웅산(게스트)

다리 Bridge

다 리

부산 최초 아트콜라보 전문 갤러리로 주목받고 있는

벡스코 공중보행로 갤러리 '다리(多利)'

‘아시아 최고의 전시·컨벤션 허브’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벡스코
(BEXCO: Busan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에
또 하나의 이색공간이 들어섰다.

벡스코 제1전시장(구관)과 제2전시장(신관)을 잇는 공중보행로에 설치된 갤러리 '다리(多利)'가 그곳으로, 부산 최초의 아트콜라보 전문갤러리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갤러리 '다리(多利)'가 들어선 벡스코 공중보행로는 지난 2012년 벡스코 제2전시장을 오픈하면서 기존 제1전시장과와의 접근성을 고려해 건설된 구름다리 형태의 연결통로로, 폭 13m, 길이 90m의 튜브형 내부에 무빙워크(moving walk)가 설치되어 있어 두 전시장을 편하게 오고갈 수 있다.

지난해 12월 오픈한 갤러리 '다리(多利)'는 한 해 연간 1천 건 이상의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벡스코만의 특성을 살려 방문객에게는 '새로운 볼거리', 지역기업에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 지역작가에게는 '새로운 창작의 동기'를 부여하면서 예술과 비즈니스의 만남, 기업과 작가의 만남, 고객과 벡스코의 만남 등 '다리(Bridge)'가 가지는 '만남'의 의미를 통해 아트콜라보 전문갤러리로 탄생했다.

갤러리 '다리(多利)'는 갤러리 오픈을 기념해 아트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모두에게(多) 이로운(利) 아트콜라보'展을 열고 있다. 아트콜라보는 기업이 예술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예술가가 제품 개발과 생산, 포장, 유통, 홍보마케팅, 판매 등 모든 기업 활동 전반에 협력하는 활동을 지칭하는데 최근 들어 패션, 전자, 의료, IT,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갤러리 개관을 기념해 새롭게 선보이는 부산지역 기업과 작가의 콜라보 작품뿐만 아니라 KOTRA '아트콜라보' 사업을 통해 이미 선보인 콜라보 작품 등 총 16개 기업의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부산의 대표기업으로 국내 어묵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삼진어묵'은 섬세한 터치의 김수진 작가를 만나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된 아름다우면서도





멋스러운 스타일의 패키지를 선보였으며, 또 다른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인 '조광페인트'는 자사 제품을 애용하고 있는 최한진 작가의 사이보그 조형물을 응용한 독특한 디자인을 페인트 통에 입혔다. 또한 천연식물성 재료를 사용해 웰빙 라이프를 선도해오고 있는 '자연지애'는 다육식물을 소재로 자연의 진정성을 표현해 온 정희진 작가와 만나 자연친화 제품의 특성을 유감없이 표현했으며, 소셜벤처기업인 '바이맘'의 난방텐트는 조재임 작가가 담안낸 숲의 환상적인 느낌을 제품 속에 녹여 내어 숲 속 작은방을 연출해 냈다. 낚시대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중소기업인 '용성'의 낚시대 피쉬 케이스는 작가 엔조의 푸른 장미와 어우러져, 기존 낚시업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이고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특히 벅스코에서는 아트콜라보 갤러리 오픈 기념으로, 부산의 어린이 101명과의 콜라보 작업을 통해 기념품 '우리의 미래'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우리의 미래'는 101명의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자화상'을 모아 모자이크 형식으로 제작된 에코백으로, 갤러리 오픈 이벤트를 통해 제공되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 열리고 있는 아트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모두에게(多) 이로운(利) 아트콜라보'展은 오는 3월 30일까지 계속된다.

갤러리 '다리(Bridge)' 오픈일과 맞물려 제2전시장에서도 겨울방학을 맞아 레이스 키즈파크 롤루랄라, 공동어드벤처 동물탐험대2 with 버블쇼&실내놀이터, 실내썰매 키즈월드 시즌4 등 다양한 가족체험 행사가 열리면서 제2전시장을 잇는 갤러리 '다리(Bridge)'에도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많아졌다. 특히 갤러리 '다리(Bridge)'는 제2전시장뿐 아니라 벅스코와 바로 이웃한 부산시립미술관, 이우환 공간과도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 앞으로 부산시립미술관과 연계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부산시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예정이다.



CULTURE

LIFE

February 2017
vol. 302

INVITATION TO THE ARTS

33 프리뷰

38 리뷰

40 프로그램 가이드

50 새로 나온 음반

51 새로 나온 책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글로벌아트홀 | 505-5995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수아트홀 |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Preview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2017 부산시립극단 배우 워크숍 '누구니, 난?'



지난해 12월 2016년 마지막 정기공연 '돌아와요, 부산항에'로 부산연극애호가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던 부산시립극단이 2017년 첫 무대로 부산시립극단 배우 워크숍 '누구니, 난?'을 무대에 올린다.

2.10(금)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무료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선착순 예매)

문의 부산시립극단 607-3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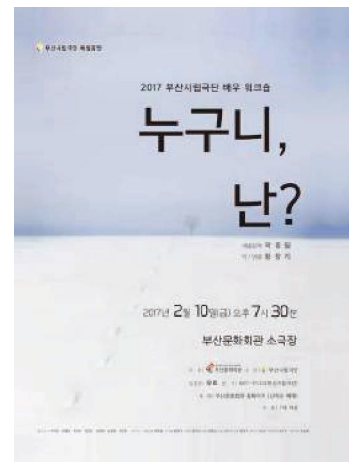
올해 첫 선을 보이는 '부산시립극단 배우 워크숍'은 매년 2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단원들이 그동안의 부산시립극단 활동을 되돌아보며 배우고 익힌 기량을 확인하는 자리로, 상임단원이 연출을 맡아 '배우의, 배우에 의한, 배우를 위한' 무대로 마련된다. 이번 무대에서는 수석단원 황창기가 극작과 연출을 맡아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짐을 통해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희망으로 구원의 손길을 갈구하며 그들만의 먼 길을 떠난다는 내용의 '누구니, 난?'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진다.

막이 오르면 깨달은 자, 0는 그의 분신들인 0.5 그리고 0.9와 함께 인간들이 펼쳐놓은 삶의 길을 향해 떠난다. 어느 시골길, 폐허로 어둠이 내려앉은 그곳에서 두 명의 부랑자 1, 2를 만난다. 그들은 의미 없는 놀이로 시간을 마냥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공간을 떠날 수가 없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상자 속에 갇힌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짓을 만든 것이다.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어질 즈음, 그들 사이로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처럼 권력의 순환 속에 허덕이는 또 다른 부류의 인간 3, 4가 찾아와 함께 뒤엉킨다. 배우 3, 4가 떠난 후 배우 1, 2는 무료해진다. 의미 없는 시간들로 지루함이 길어지니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더 깊이 절망한다. 절망이 곧 삶이고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구원받고 싶다. 이때 통찰한 자, 0과 0.5 그리고 0.9는 인간들 앞에 나타나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희망으로 구원의 손길을 뻗는다. 그들은 그렇게 먼 길을 다시 떠난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한해 비상임단원으로 활동해온 단원 박아영, 안예은, 최현주, 장현준, 김태원, 김성동, 전현준이 출연, 부산시립극단에서의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이번 공연의 관람료는 전석 무료이며,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선착순으로 예매 가능하다.

- 예술감독 / 광종필
- 작, 연출 / 황창기
- 출연 / 박아영, 안예은, 최현주, 김성동, 김태원, 전현준, 장현준



Preview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하는 Friendly Concert

지휘 이건물



지휘 최현욱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연



풍부한 음악성과 다양한 레퍼토리를 자랑하는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초청으로 마련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Friendly Concert'가 2월 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2.24(금)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10, 607-3170

지난 2003년 처음 시작된 'Friendly Concert'는 지난해 세계 정상 어린이합창단인 월드비전선명회합창단을 비롯해 그동안 서울, 대구, 창원, 김포, 안양, 목포, 성남,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초청, 전국의 소년소녀합창단과 우정의 무대를 가져왔다. 2017년 첫 무대로 마련되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합창을 통한 우정의 하모니를 들려준다. 특히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 1월 18일부터 사흘간 통영에서 펼쳐진 동계합창캠프를 함께 진행하면서 쌓은 공감대를 통해 두 합창단이 빚어낸 최고의 콜라보레이션 무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1973년 3월 창단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매년 6회의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 등 수많은 연주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합창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독일 할레에서 개최된 '제33회 할레국제어린이 합창페스티벌'에 참가, 현대합창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이듬해인 2013년, '할레국제어린이합창페스티벌'에 우승팀 자격으로 재초청받아 할레와 더불어 함부르크, 드레스덴, 체코 프라하에서 연주회를 가졌으며, 2015년 5월에는 '이과수국제음악제' 초청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연주회를 갖는 등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1987년 5월에 창단된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수석지휘자 최현욱과 스텝, 단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클래식음악에서부터 재즈음악, 뮤지컬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여왔다. 수많은 연주회를 통해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시를 널리 홍보하는 문화사절단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특히 그동안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무대에 올리면서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유의 맑고 밝은 화음을 통해 청소년들뿐 아니라 일반 관객들에게도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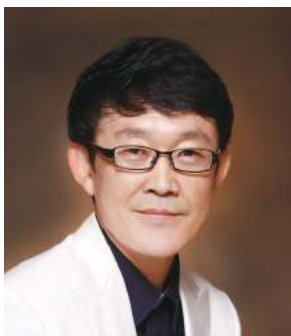
이번 무대에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싱그러운 봄을 알리는 봄 노래와 뮤지컬 넘버를,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아름다운 선율 위에 반딧불 펜이 조명과 어우러져 음악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박지훈 곡 '반딧불미사'와 흥겨운 우리 민요 메들리를 들려주며, 마지막 무대에서는 두 합창단의 연합합창을 통해 노래로 하나 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이번 무대를 위해 따뜻한 음식과 풍부하고 파워풀한 연주력을 지닌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연이 협연자로 출연, 바르톡의 '루마니아 포크 댄스', 브람스의 '헝가리무곡'을 들려준다. 부산예술고등학교 재학중 도둑, 독일 쾰른국립음대에서 학사 및 석사과정을 만점졸업한 이지연은 독일 유학시절 오사카 국제콩쿠르, 프랑스 Moulin d'Ande 국제콩쿠르, 이태리 Corato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2016년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현재 솔로 및 앙상블 연주자로 활동중이다.

Preview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국립부산국악원 2017 신춘음악회 아름다운 동행

기획 이정필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흥겨운 우리 가락으로 전해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17 신춘음악회가 국립부산국악원 합동무대로 3월 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기획 권성택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국립부산국악원과의 합동무대를 통해 부산시민들에게 풍성한 국악무대를 선사해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지난해 3월에는 국립부산국악원 초청으로 국립부산국악원에서 2016 신춘음악회를 가진 바 있다.

무용 오상아



이번 무대는 1부에서는 국립부산국악원 예술감독 권성택이, 2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를 맡아 새봄의 흥겨움을 담은 다양한 곡들을 들려준다. 1부 첫 곡은 동래지역에서 전승되어 오는 민속춤인 '동래학춤'을 모티브로 한 창작곡 '동래학춤, 은빛 날개의 꿈'. 맑고 우아한 학의 움직임을 소박하게 표현한 '동래학춤'은 원래 구름과 더불어 팽과리, 징, 장구, 북 등 타악기의 굿거리장단 반주가 기본인데, 이번 무대에서는 2017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염원을 담은 국악관현악 연주로 21세기 새로운 동래학춤을 선보인다. (사)한국여성작곡가회 박영란 회장이 작곡하고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예술감독 오상아가 재구성, 안무를 맡아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단원 김미진의 구름, 국립부산국악단 무용단의 춤사위로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날아가는 자유로운 학의 이미지를 무대에 담아낸다.

무용 김용우



이어서는 미국 하와이대학교 작곡 및 이론 부교수인 토마스 오스본 곡 'Verses'를 들려준다. 'Verses'는 한국시조의 각 장을 모티브로 한 해금협주곡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해금주자 방병원이 협연한다. 1부 마지막 곡은 국립부산국악원 태평소주자 이종철이 들려주는 '서용석류

3.2(목)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태평소 시나위와 관현악'으로, 서용석류 태평소 시나위를 국악관현악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협주곡 형태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2부 첫 곡은 작곡가 계승원이 작곡한 창작 국악 관현악곡 '매화 봄 향기 속으로'. 남녀간의 사랑의 이치를 흥겨운 노랫가락에 얹은 '매화가'를 토대로 작곡된 '매화 봄 향기 속으로'는 남에 대한 그리움과 늦은 봄을 절묘하게 대비시켜 떠나간 남에 대한 기다림을 국악관현악의 깊은 울림으로 표현한 곡이다. 이어서는 소리꾼 김용우와 함께하는 국악관현악 무대로, 지난해 KBS국악대상 민요상 및 대상을 수상한 소리꾼 김용우가 민요 '창부타령'을 그만의 스타일로 부른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각설이타령으로 유명한 '장타령'을 들려준다.

2017 신춘음악회 마지막 무대는 우리나라 각 지방의 대표적인 민요를 재구성한 '팔도민요 연곡'으로 꾸며진다.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단원 김미진, 신진원, 김세운, 이은혜, 신현주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 부수석 정성희가 경기도의 '한강수타령'을 시작으로 몽금포타령(황해도), 천안삼거리(충청도), 강원도아리랑(강원도), 밀양아리랑(경상도), 진도아리랑(전라도), 너영나영(제주도) 등 각 지역별 흥겨운 민요를 들려준다.



다양한 주제와 테마로 관람객과 만난다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풍성

1년 365일 다양한 주제와 테마가 있는 전시로 부산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부산시립미술관이 2월에도 다채로운 기획전으로 관람객들과 만난다.

2016년 작고작가전 ‘시간의 산책자들’

임응식 · 정인성

부산시립미술관 2층 대전실에서는 부산 미술의 뿌리를 찾아 부산 미술 1세대 작가들을 재조명하는 연례기획전 ‘2016년 작고작가전’이 열리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작고작가전’은 첫 해인 2009년 김천옥, 김경을 시작으로 2010년 임호, 이석우, 2011년 우신출, 김윤민, 2012년 한상돈, 김남매, 2013년 송해수, 2014년 오영재, 조동벽, 2015년 김원갑, 이규욱 등 지금까지 총 11명의 작고작가들을 재조명하면서 부산시립미술관의 대표적인 기획전시로 사랑받고 있다.

이번 ‘2016년 작고작가전’에서는 작가이자 교육자로서 사진문화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헌신했던 부산 1세대 사진작가인 임응식, 정인성 선생의 대표작 240여 점이 전시된다. 부산 최초의 사진동우회인 ‘부산광화회(釜山光晝會)’를 결성하기도 했던 임응식은 1952년 6월 서울에서 피란 온 대한사진예술연구회 회원들과 합동 전시를 개최했으며, 같은 해 12월 한국사진작가협회를 창립하고 회장을 역임했다. 임응식은 일제강점기에는 서정적이면서도 향토적인 소재를 담은 소위 ‘살롱 사진’과 ‘회화주의 사진’을 주로 찍었으나, 한국전쟁 기간 중 종군사진기자로 참전하면서부터 현실을 직면해 담아내는 ‘생활주의’ 사진의 추구를 선언하고 리얼리즘 정신이 담긴 사진을 남겼다.

부산사진의 제1세대로서 부산의 사진활동을 주도했던 정인성은 1957년부터 부산대학교에서 사진예술론을, 1965년부터 한성여자 초급대학(현 경성대)에서 사진기법을, 1966년부터 동아대학교에서 사진학을 강의하는 등 대학에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교육자이자 평론가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현상, 인화와 같은 암실작업을 손수 하며 완벽한 구성과 조형미의 추구를 위해 비연출과 스냅숏이라는, 당시 리얼리즘 사진의 절대 원칙을 고수하던 정인성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 ‘고달픈 현실을 찍은 사진에서마저 드러나는 따뜻하고 넉넉한 느낌’의 정인성 스타일 사진을 완성시켰다.

2월 26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 2층 대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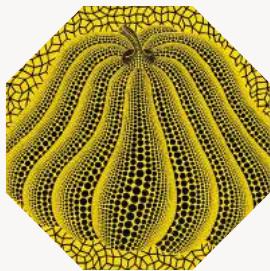


젊은 부산작가 프로모션 ‘Big Match’ 송현철 ‘The Hero’

젊은 작가 프로모션 전시인 ‘빅매치’는 지난해 ‘앤디 워홀 라이브’에 쏠린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신예작가 프로모션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시작된 부산시립미술관의 기획전이다. 특히 지난 제1회 ‘빅매치’전에 초대된 조각가 손현욱은 포스트모던아트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앤디 워홀의 ‘Brillo Box’를 패러디한 ‘Brillo Box’에 오줌을 싸고 있는 강아지 작품으로 미술관을 찾는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누린 바 있다.

‘이중섭, 백년의 신화’ 전시기간에 맞춰 열리는 이번 제2회 ‘빅 매치’ 전에서는 그동안 로봇영웅 연작을 제작해온 송현철 작가가 국민화가 이중섭에 대한 경의로 로봇 영웅 신작을 선보인다.

2월 26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 로비



2016 소장품 기획전 ‘활짝 열린 방’

‘2016 소장품 기획전’으로 마련된 ‘활짝 열린 방’은 ‘작품을 본다’라는 의미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 전시이다. 흔히 우리는 ‘작품을 본다’고 하지만 시각 대상으로서의 작품일지라도 바라보는 동안 대상에 대해 탐구하고 관계 맺기를 시작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부산시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 중 미술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회화 작품에서부터 사운드·미디어 작품까지 총 17점이 소개된다. 특히 시각적 감상뿐 아니라 촉각을 동원한 작품 감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시각뿐 아니라 다른 감각을 동원한 공감각적 감상으로 시각의 확장을 꾀하며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작품 보기’에 ‘다가서기’를 돕는다.

4월 2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 3층 소전시실



기획전 ‘욕망의 메트로폴리스’

거대도시는 자본의 욕망에 포획되어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환상을 만들어낸다. 결국 도시를 삶의 공간으로 여겨왔던 도시는 도시의 환영 속에서 소외와 결핍을 경험하게 된다. 부산시립미술관의 또 다른 기획전 ‘욕망의 메트로폴리스’는 이렇듯 현 시대 도시, 특히 부산이라는 도시가 갖는 의미에 대해 확인하는 전시로, 부산을 비롯한 서울, 일본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대미술작가들이 참가, 전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는 ‘욕망의 메트로폴리스’라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다시 세 개의 소주제로 나뉘어 전시된다. 그 첫 번째는 급속한 개발과 소비로 대변되는 스펙터클한 도시 이미지와 경관을 통해 도시를 말하는 ‘환영의 도시’로 작가 안세권, 조세피나 리, 김태연, 정혜련이 참여한다. 두 번째 소주제로는 이러한 욕망의 환영 이면에 은폐된 채 존재하는 도시문제를 이야기하는 ‘도시의 이면들’들로, 작가 조형섭, 박자현, 서평주, 정주하, 김아영, 임봉호, 이광기, 허병찬, 변재규, 김정근의 작품이, 마지막 소주제는 도시민으로서의 예술가의 고민과 도시민과의 예술적 소통을 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사람들’로 작가 김윤경, 기타가와 타카요시, 정윤선, 백현주의 작품이 선보인다.

4월 2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 3층 대전시실

어린이미술관 관람객 체험형 전시 ‘해와 달의 서커스’

어린이미술관에서는 관람객 체험형 전시인 ‘해와 달의 서커스’가 2월 26일까지 펼쳐진다. ‘기억, 공유, 나눔’이라는 세 가지 주제어를 바탕으로 기획된 ‘해와 달의 서커스’는 축제의 상징으로 통용되고 있는 크리스마스트리 형식을 차용하고 간절한 소원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닌 보름달과 떠오르는 해의 이미지를 통해 공간을 구성, 가족과 이웃에게 안부를 전하고 소원을 비는 마음을 미술관 작품을 통해 경험해볼 수 있다. 부산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수, 김종선, 이정윤, 정찬호, 정채은 등 젊은 작가 5명의 협력프로젝트로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만남을 통해 오히려 신선한 소통의 표현을 시도한다.

2월 26일까지, 어린이미술관

Review

2017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신설령 음악평론가

38

빈 소년 합창단. 그 이름만으로도 정말 부러운 합창단이다. 520년의 합창음악 역사를 가질 수 있다니, 그 역사와 전통의 아우라로 우리는 그들을 최고의 소년합창단으로 보게 된다.

새해를 맞아 부산을 찾은 빈 소년 합창단의 연주곡목은 다채롭다. 제1부에서는 음악회에서 보기 힘든 르네상스 시대 작곡가 하슬러의 곡이 눈에 띈다. 그리고 헨리 퍼셀, 비발디, 모차르트, 슈베르트, 멘델스존에 이르는 바로크, 고전, 낭만주의 시대 작품을 연주한다. 여기까지는 작품이 탄생된 시대를 보여주듯 성가곡과 군주를 위한 찬양곡이 주를 이룬다.

제1부 후반부와 제2부에서 연주하는 곡은 20세기 작품과 영화음악, 민요, 그리고 특히 월드뮤직이 흥미롭다. 라틴 아메리카 자장가인 '잘 자라, 작고 검은 아이야'는 아타우알파 유판키, 메르세데스 소사, 빅토르 하라와 같은 유명한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 중 하나이며, 이들의 노래는 월드뮤직으로 널리 알려진 바 있다. 물론 빈 소년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의 느낌은 당연히 많이 다르다. 멕시코 노래 '내 사랑하는 작은이여'는 귀에 꽤 익은 노래다. 남아프리카 소토 사람들의 노래 '축복'은 더욱 흥미롭다. 이들의 영성적 찬가인 '축복'은 남아프리카의 음

악적 특징이 드러나는 노래인데 빈 소년 합창단이 타악기를 반주 삼아 발을 구르며 손 흔들며 노래하는 모습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배경의 뮤지컬 '우모자'의 한 부분을 떠오르게 한다.

이렇듯 빈 소년 합창단의 곡들은 서양음악사의 한 흐름을 보여주며, 동시대의 음악을 들려주고, 또 월드뮤직을 택함으로 보다 다양한 나라들의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 있는 선곡이 청중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이날 연주 회장에는 초등학교생들이 많이 보였다. 물론 프로그램 노트에는 곡해설이 자세하게 실려 있었다. 그런데 그 많은 해설을 다 읽고 음악에 연결시켜 듣기는 쉽지 않다. 요즘은 여러 공연장에서 볼 수 있듯이 스크린을 사용해서 노래 가사를 띄우든지, 간략한 곡 소개를 한다면 음악에 집중하고 공감하기가 조금은 쉬웠을 것 같다.

긴 시간 노래하는 데서 오는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약간의 장치도 있었다. 불가리아 민요를 부를 때는 발성법에 변화를 주기도 하고, 오스트리아 민요를 부를 때는 지휘자가 청중에게 후렴구를 가르쳐주고 합창단과 함께 부르게 하여 어른도, 아이도 함께 따라 부르며

즐거워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합창단원 중 몇 명이 단복을 벗고 셔츠와 반바지로 바뀌 입고 안무를 곁들여 노래함으로써 보다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

빈 소년 합창단의 신년음악회를 즐기며 한 편으로는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다. 그것은 그들에게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서 오는 아우라를 걷어내고 음악으로만 봤을 때 갖게 되는 아쉬움이다. 변성기 이전의 소년 목소리는 참 예쁘지만 25명의 단원으로 큰 무대를 장악하기에는 소리가 여리고, 저음 파트가 약하다. 그래서 음악적 다이내믹의 한계를 본다. 어린 소년들이 많아서인지 음악적 표현의 한계도 노출된다. 그러나 모차르트 곡의 2중창, 그리고 9명이 부르는 무반주 3부 합창은 정말 좋았다. 그리고 합창으로 듣는 '황제의 왈츠'는 빈 신년음악회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마지막 무대에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그들과 함께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며 음악적 실력에서 결코 뒤지지 않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문화강국에서 오는 아우라를 언제쯤이면 덧입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Review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
이중섭, 백 년의 신화

박미경 화가

이중섭 탄생 100주년, 작고 60주년을 맞아 '이중섭展'이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순회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중섭(1916-56)은 평안남도 평원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 평양, 정주, 도쿄에서 학업을 쌓았으며 일본에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표현주의적인 경향으로 소를 모티브로 한 작품을 주로 그렸다. 1943년 조선신미술가협회전에 출품하기 위해 귀국했다가 함경남도 원산에서 해방을 맞았다. 한국전쟁으로 월남 이후에는 부산, 제주, 통영, 진주, 서울, 대구에서 작품 활동을 했다. 1956년 41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이중섭은 우리민족의 암울한 현실을 살아오면서 '예술가'로서, 우리 시대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삶을 고스란히 그림으로 표현한 작가이다. 이중섭의 그림은 은지화와 편지화, 풍경화, 소 그림 등으로 구분된다. 제주에서의 가난한 피란시절에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1년간 보내며 즐거웠던 한 때를 아름답게 표현했다. 특히 화폭 가득히 아이들의 노는 장면들을 율동적인 인체로 표현하였다. 가족들을 소재로 한 인체 표현은 간략하지만 섬세한 율동이 화면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중섭의 은지화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은지화는 재료가 없어 담뱃갑 은박지

를 화폭 대신 쓴 이중섭이 창안한 새로운 기법이다. 은박을 새기거나 굵고 그 위에 물감을 바른 후 닦아내면 굵긴 부분에는 물감자국만 남게 된다. 그렇게 생긴 선들은 드로잉으로 완성되는데 이 기법은 고려청자의 상감기법이나 금속공예기법을 연상시킨다. 경쾌하고 유연한 필선의 은지화는 그 고유성을 인정받아 뉴욕현대미술관(MOMA)에 소장되어 있다. 약 300점의 은지화를 제작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제주 서귀포의 행복했던 가족들의 모습과 자신의 암울한 현실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매우 다양한 장면들을 그렸다.

전쟁이 끝날 무렵 통영에서는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에서 강사로 재직하며 유화로 그린 풍경화와 '소' 연작들을 제작했다. 이중섭에게 있어 '소'는 시대의 아픔과 개인의 슬픔 또는 그의 어머니를 뜻한다. 흰 소를 자주 그린 것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뒤엉킨 두 마리 소의 대결에서 민족에 대한 자각을 일깨워준다. 소는 아주 강렬한 터치로 그려져 있는데 이는 그의 절망과 슬픔을 이겨내려는 마음의 표현으로 그가 이루고자하는 희망이자 의지, 힘을 상징한다. 또한 소와 아이가 어울려 노는 장면을 통해 해학적인 웃음과 정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7월 아내와 두 아들을 일본으로 떠나보내고 가족들에게 수많은 편지

를 보냈다. 편지 내용 주변에 가족들을 소재로 한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마치 꽃 편지처럼 편지 주변을 장식하였다. 이중섭의 편지는 자유자재의 글씨와 즉흥적인 그림이 어우러져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보기에 손색이 없다.

1955년 1월 미도파화랑에서 개인전을 열었는데 약 20점이 팔렸으나 수금이 되지 않아 곤경에 빠졌으며 4월 3일 대구의 미국 공보원 화랑에서 개인전을 열지만 서울보다 더 비참한 결과로 인해 거식증을 동반한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렸다. 대구 외곽 왜관에 있던 구상의 집에서 머물며 요양생활과 작품제작을 계속했으며 1955년 12월경 서울 정릉에서 문예지의 삽화도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강' 연작을 포함한 마지막 작품들을 남겼다. '돌아오지 않는 강'의 작품은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예언적인 그림인 것 같아 보는 이들에게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

2016년 10월 20일~ 2017년 2월 26일
부산시립미술관

2017 CJ문화재단 신년콘서트 즐겁고 행복한 동행

일 시 | 2017년 2월 2일 목요일 오후 8: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마이크임팩트 02-722-2035



2017년 정유년을 맞아 서로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CJ문화재단 신년콘서트 '즐겁고 행복한 동행'.

2017년을 시작하며 혼자자가 익숙해진 시대, 누군가와 동행이 절실한 시대에 서로의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무대는 시각과 청각을 결합한 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화음첼비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시작으로, 철학적 소동과 사유로 모든 사람이 철학자인 세상을 꿈꾸는 인문학자 강신주의 '인생특강', 실력파 뮤지션의 음악적 성장을 지원하는 '튜업' 뮤지션 '아이엠츠'의 공연 등 함께라서 더욱 따뜻한 음악과 이야기가 펼쳐진다.

- 사회/아나운서 김진주
- 출연/화음첼비오케스트라, 철학자 강신주, 아이엠츠

서정빈 & 이종원 기타 리사이틀

일 시 | 2월 5일 일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서정빈 010-9513-6025



현재 부산페스티벌기타 앙상블 악장과 단원으로 있는 서정빈과 이종원이 함께하는 클래식 기타 리사이틀.

서정빈은 2014년 기타 독주회를 시작으로 2015년 이종원·서정빈 클래식기타 연주회, 2016년 재미난 샬롱 콘서트, 부산기타페스티벌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2011년 성남 기타콩쿠르 1등, 2015년 한국기타협회 콩쿠르 성인부 2등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 서울예고에 입학 예정인 이종원은 2015년 이종원·서정빈 클래식기타 연주회를 시작으로 2016 재미난 샬롱 콘서트, 부산기타페스티벌 정기연주회,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 정기연주회 등에 출연했으며, 지난해 대전국제기타콩쿠르, 한국기타협회콩쿠르 일반부에서 3등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정통 클래식에서부터 뉴에이지까지 다양한 시대와 장르의 음악을 클래식기타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아시아와 서양 예술이 함께하는 페스티벌

일 시 | 2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11일 토요일 오후 2:00, 7:30, 12일 일요일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 R석 17만원, S석 13만원
A석 10만원, B석 8만원, C석 6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544-8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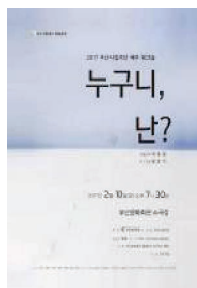
중국 5천년 역사의 신화와 전설이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아시아와 서양예술이 함께하는 페스티벌'.

매년 5개 대륙 100여 개 도시에서 450회 이상 공연하며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켜온 이번 무대는 최고 수준의 중국 고전무용단과 동서양 악기를 결합시킨 독창적인 오케스트라에 환상적인 최첨단 디지털 영상이 결합되어 황홀하면서도 신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 선보이는 중국 고전무용은 서양의 발레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으면서도 표현력이 풍부한 예술형식 중 하나로, 도약, 공중회전 등 풍부한 기교로 극중 인물을 섬세하고 생생하게 표현한다.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2017 부산시립극단 배우 워크숍 누구니, 난?

일 시 | 2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무료(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선착순 예매)
문 의 | 부산시립극단 607-3123



올해 첫 선을 보이는 '부산시립극단 배우 워크숍'은 매년 2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단원들이 그동안의 부산시립극단 활동을 되돌아보며 배우고 익힌 기량을 확인하는 자리로, 상임단원이 연출을 맡아 '배우의, 배우에 의한, 배우를 위한' 무대로 마련된다.

수석단원 황정기가 극작과 연출을 맡은 이번 무대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짐을 통해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희망으로 구원의 손길을 갈구하며 그들만의 먼 길을 떠나는 내용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진다.

- 예술감독/곽종필
- 작, 연출/황정기
- 출연/박이영, 안예은, 최현주, 김성동, 김태원, 전현준, 장현준

(재)부산문화회관 2017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카이와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스윗 발렌타인

일 시 | 2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부산문화회관 VIP 회원 초대권 증정, 커플 구매시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로맨틱한 연인들의 날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부산문화회관이 마련한 2017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카이와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스윗 발렌타인'.

(재)부산문화회관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팜페라계의 성서경'이라 불리는 달콤한 목소리의 뮤지컬 배우 카이가 진행하고 '베토벤을 닮은 지휘자' 백운학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세계 무대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문경, 아름다운 감동을 전하는 클래식 크로스오버 앙상블 인치엘로가 출연, 연인들을 설레게 할 로맨틱한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은 연인들을 위한 각종 이벤트 및 솔로들을 위한 커플매칭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사)부산기독교총연합회 초청 월드비전 합창단 부산 공연

일 시 | 2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음악원 02-2662-1803

지난 1960년 8월 창단 후 미국, 독일, 핀란드 등 전 세계 50개국 700여 도시에서 1,000회 이상 연주를 가져온 월드비전 합창단은 창단 57년의 오랜 전통 위에 새로운 시도와 노력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 영상과 함께하는 공연, 퍼포먼스와 연출력을 겸비한 공연을 만들어 가며 합창문화의 수준 높은 장을 열어나고 있다.

월드비전 합창단의 지난 한 해 베스트 레퍼토리만 골라 선보이는 이번 무대에서는 2016 헝가리 칸테무스 국제합창제 그랑프리상을 수상했던 이현철 작곡 'Dona Nobis Pacem'을 비롯해 다양한 현대 종교 음악을 월드비전 합창단만의 색깔로 들려준다.

• 우정출연/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준용 콘트라베이스 독주회

일 시 | 2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정준용 010-5052-6829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 학교를 수료하고 2월 부산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콘트라베이스 주자 정준용 독주회.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을 역임한 바 있는 정준용은 CBS 음악공쿠르 콘트라베이스 고등부 2위를 수상하고 그동안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및 협연, 부산대학교 정기연주회 등 수차례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 포레/인테메조와 타란텔라
- J. M. 슈페르거/소나타 h-Moll
- S. 쿠세비츠키/Valse Miniature 작품 1 제2번
- G. 보테시니/협주곡 제2번 나단조

세계 정상의 음악가들이 들려주는 보헤미안 판타지

일 시 | 2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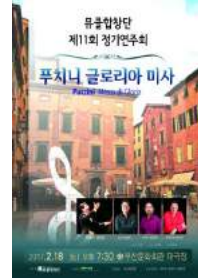
국내외 세계정상급 연주자들의 화려한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보헤미안 판타지'.

프랑스 파리 국립음악원,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교수로 있는 올리비에 가르동, 프랑스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교수로 있는 올리비에 샤를리에, 스웨덴 헬싱키 사벨리우스 음악원 교수인 아르토 노라스, 프랑스 리옹 오페라 오케스트라 수석과 리옹 국립고등음악원 교수를 거쳐 현재 파리국립고등음악원 교수로 있는 필립 베르놀드, 그리고 국내 최고의 연주자 이소영, 변애영, 최주영, 김기영이 출연, 하이든, 자르다니, 바르토크, 마르티누, 도플러, 브람스의 곡을 앙상블 무대로 들려준다.

- 플루트/필립 베르놀드, 이소영
- 첼로/아르토 노라스, 최주영
- 바이올린/올리비에 샤를리에
- 비올라/김기영

뮤클합창단 제11회 정기연주회 푸치니 글로리아 미사

일 시 | 2월 18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뮤클합창단 010-2307-6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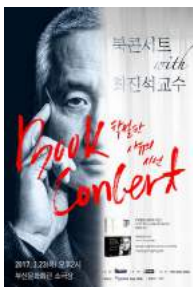
민간 아마추어 합창단으로,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서구의 정통 클래식 레퍼토리를 훌륭하게 연주하면서 주목 받아온 뮤클합창단의 11번째 정기 연주회.

지난 2005년 부산을 대표하는 공연 동호회 '뮤클(뮤지컬&클래식)'의 뮤컬 노래부르기 모임에서 출발, 전문합창단으로 성장한 뮤클합창단은 올해 11번째 정기연주회를 맞아 '푸치니 특집'으로, 푸치니의 데뷔작이기도 한 '글로리아 미사'를 비롯해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까발레리아 루스티카' 아리아를 들려주며, 오페라 '라보엠' 중 '무제타'를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드리트리로 카렌코프의 트럼펫 선율을 감상할 수 있다.

- 지휘/엄현섭
- 테너/이정원
- 바리톤/강경원
- 특별출연/드미트리 로카렌코프(트럼펫)
- 피아노/이은혜
- 오르간/김원

북콘서트 with 최진석 교수 '탁월한 사유의 시선'

일 시 | 2월 23일 목요일 오후 2: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Plan Geeks(070-8255-5588)



대한민국의 오늘을 위한 서강대학교 최진석 교수의 철학적 통찰을 만날 수 있는 북콘서트 '탁월한 사유의 시선'.

'건명원(建明苑)' 초대원장을 맡고 있는 최진석 교수가 지난 2015년 건명원에서 진행한 다섯 차례의 철학강의를 묶은 '탁월한 사유의 시선'은 개인의 삶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지금 전진과 후퇴의 경계선에 서 있는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관찰해온 사유의 결정체로, 이번 북콘서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개인과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관한 깊은 고뇌를 함께 나누다.

최진석 교수는 지난 2015년부터 마에스트로 오충근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인문학콘서트 '노자와 베토벤'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철학적 사고를 클래식 음악으로 들려주는 색다른 시도로 클래식 연주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진행/손지현
- 우정출연/오충근
- 축하연주/양재영(바이올린)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하는 Friendly Concert

일 시 | 2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10, 3170



풍부한 음악성과 다양한 레퍼토리를 자랑하는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Friendly Concert'.

이번 무대에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싱그러운 봄을 알리는 봄 노래와 뮤지컬 넘버를,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아름다운 선율 위에 반딧불 펜이 조명과 어우러져 음악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박지훈 곡 '반딧불미사'와 흥겨운 우리민요 메들리를 통해 노래로 하나 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이건륜(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최현옥(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 협연/이지연(바이올린)

제10회 한행래 바이올린 클래스 앙상블 리사이틀

일 시 | 2월 24일 금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한행래 010-9566-0368



현재 동의한의대오케스트라 현악파트 지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현악파트 지도, 채움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한행래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클래식 앙상블 리사이틀.

프로그램

비발디/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카를로스 가르델/간발의 차 커티스/날 잊지 마세요

- 헨델/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등
- 출연/장한나(용문초등 2학년), 임민서(분포초등 6학년), 김수한(경남중 2학년), 윤재원(태종대중 2학년), 제수민(문현여중 2학년), 김한수(본포중 2학년), 다니엘 동인김(아코르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 찬조출연/양재원(성악), 오현진(첼로), 울산시립교향악단 단원, 박은정(피아노), 국제반주협회 회원)

소녀들의 피리아야기

일 시 | 2월 25일 토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여은혜 010-7197-8515

...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두루지아 플루트앙상블 단원, 마산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플루트 강사, 초음초등학교 강사, 상리초등학교 오케스트라 강사, 명륜초등학교 강사로 있는 플루티스트 여은혜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무대. 여은혜는 김해청소년교향악단 부수석, 경남팝스오케스트라 부수석, 부산 빛과 소금 복지재단 플루트 강사를 역임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다른 악기와 어우러지는 플루트 앙상블 무대를 통해 플루트 선율의 색다른 매력을 전해준다.

[프로그램]

사랑의 춤, Robert der Teufel, E. Walckiers 'Trio', 뱃노래, Bohemia, Farewell Trio, 사랑의 찬가, 추배의 노래, Devienne '플루트 협주곡 제4번', 녹턴, Behr Noctrine 등



영남국악원 장경미 제자 발표회 2nd

일 시 | 2월 27일 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장경미 010-6431-6440

...
중요무형문화재 제83호 구례향채줄풍류 이수자,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중요제례악 전수자, 동의대학교 콘서바토리 한국음악학과 강사, 일파가야금합주단 악장으로 있는 장경미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두 번째 발표회.

부산대학교 국악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악과 가야금 전공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장경미는 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을 역임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장경미가 강사로 있는 영남국악원은 개원 30년이 넘는 부산의 유서깊은 국악원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등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국악 연주자들을 배출해오고 있다.



Love Violin & Cello

일 시 | 2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이대성 010-2302-2432

...
바이올리니스트 이대성, 첼리스트 김윤영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Love Violin & Cello'.

올해로 12회를 맞는 이번 무대는 악기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결음 더 나아가 연주회를 통해 무대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솔로 연주뿐만 아니라 앙상블연주를 통해 같이하는 음악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연주는 흥남파의 '작은 별', 바흐의 '미뉴엣', 독일민요 'May Song'과 같은 귀에 익숙한 곡들부터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언' 같은 현대곡과 더불어 연주하며, 앙상블곡으로는 헨델의 '시바여왕의 도착'과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를 감상할 수 있다.



현을 타고 봄이 오는 소리

일 시 | 3월 1일 수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이은실 010-2782-1525

...
현재 부산첼버오케스트라 단원, 상리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수석강사, 문현초등학교, 하남초등학교 오케스트라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은실의 제자들로 구성된 L.E.S String Ensemble이 마련하는 제자음악회 '현을 타고 봄이 오는 소리'.

이은실은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성대학교 오케스트라 악장,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을 역임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린 솔로연주 외에도 바이올린 4중주, 가야금, 성악, 플루트와의 2중주, 피아노 트리오 등 다양한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미뉴엣
F. 지이츠/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3악장
엔니오 모리코네/넬라 환타지아
비발디/바이올린 협주곡 사단조 1악장
피아졸라/아디오스 노니노
마스네/타이스 명상곡 등 수록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국립부산국악원 2017 신춘음악회 아름다운 동행

일 시 | 3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흥겨운 우리 가락으로 전해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국립부산국악원의 합동무대 2017 신춘음악회 '아름다운 동행'.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국립부산국악원과 합동무대를 통해 부산시민들에게 풍성한 국악무대를 선사해 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지난해 3월에는 국립부산국악원 초청으로 국립부산국악원에서 2016 신춘음악회를 가진 바 있다. 1부에서는 국립부산국악원 예술감독 권상택이, 2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를 맡아 새봄의 흥겨움을 담은 다양한 곡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박영란/국악관현악, 구음, 무용을 위한 '동래학춤:은 빛 날개의 꿈'
토마스 오스본/해금협주곡 'Verses'
계성원(편곡)/서용석류 태평소 시나위와 관현악
계성원/매화 봄 향기 속으로
소리꾼 김용우와 함께하는 국악관현악/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장타령
이준호(편곡)/팔도민요 연곡

제6회 코랄하우스 100인 남성 축제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3월 4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김강규 010-4183-2293

...
(사)송인문화재단이 부산지역 아마추어 남성합창단 단원들과 부산합창음악의 부흥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3월 마련해오고 있는 코랄하우스 100인 남성축제합창단의 2017년 무대.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사)송인문화재단 음악감독, 경주시립합창단 지휘자로 있는 김강규의 지휘로 웅장하면서도 중후한 남성합창의 매력을 들려준다.

•지휘/김강규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저녁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학생, 예술인패스 소지자 5천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1일 Enthusiasm! 그 위대한 예술가의 열정



테너 서훈하, 문한솔, 바리톤 오세민, 베이스 최현욱, 베이스 바리톤 양종근이 새봄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가곡과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슈베르트/세레나데, 볼کم

리벨/틸시네를 만난 돈키호테 중 '낭만의 노래'

슈베르트/겨울나그네 중 '강 위에서'

토스티/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으니, 슬픔

모차르트/클리오에게

플랑크/8개의 명량한 노래들 중 '아름다운 청춘' 등 수곡

- 피아노/김란, 박은정
- 해설/배우 이찬솔
- 특별출연/아름다운 소리 중창단(지도교사/김지은)

8일 앙상블 아토 ART-O 두 번째 정기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손은혜, 류승연, 정아람, 탁서연, 비올리스트 김가민, 윤솔샘, 첼리스트 김기량, 오현진 등 부산, 울산, 경남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고 실력있는 클래식 연주자들로 결성된 현악8중주단 '앙상블 아토 ART-O'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2016년 3월 창단 연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앙상블 아토는 부산문화회관 토요일실무대, 2016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부산음악인시리즈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다.

프로그램

닐스 빌헬름 가데/현악 8중주 바장조 작품 17

비발디/사계 중 '겨울'

쇼스타코비치/현악4중주 제8번 다단조 작품 110

15일 Korea Wind Consort 'Serenade for Wind'

플루티스트 조성철, 정주연, 오보이스트 김성민, 박선영, 클라리네티스트 김정울, 문진성, 권진우, 바



수니스트 장정호, 문혜리, 유주훈, 호른리스트 임승범, 김영민, 오원택, 백나영, 첼리스트 김판수, 더블베이스스트 이호영으로 구성된 Korea Wind Consort의 무대.

프로그램

리처드 스트라우스/세레나데 내림마장조 작품 7

드보르작/관악기를 위한 세레나데 작품 44

22일 THE QUARTET과 친구들



바이올리니스트 김나영을 리더로 바이올리니스트 심신지, 비올리스트 윤솔샘, 첼리스트 변은석으로 구성된 THE QUARTET과 피아니스트 정정현, 피아니스트 최영민과 함께하는 앙상블의 무대.

프로그램

브람스/혼 트리오 내림마장조 작품 40

그리그/현악4중주 제1번 사단조 작품 27

• 진행/고민지

2017 동래문화회관 신년 가족음악회 한국을 대표하는 플루티스트 이소영&나진주 재즈트리오 with 나눔 앙상블

일 시 | 2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동래문화회관과 나눔 플루트 소사이어티가 함께 하는 2017 신년음악회. 미국 오벌린대학, 예일대학교 재학 중 미주지역 Carmel Valley, New York Flute Club, Flute Talk Magazine 콩쿠르 등에 입상하며 기량과 음악성을 일찍이 인정받은 플루티스트 이소영의 해설이 있는 연주로 꾸며지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나진주 재즈트리오의 흥겨운 재즈 연주가 펼쳐진다.

- 플루트/이소영, 성기업
- 피아노/이경아
- 재즈피아노/나진주
- 베이스/유경훈
- 해설/김윤선
- 비올라/박소영
- 보컬/최아름
- 드럼/박성진

비바 체임버 오케스트라 제 3회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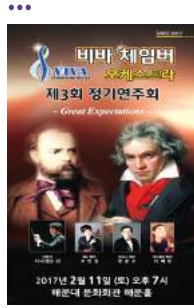
일 시 | 2월 11일 토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단장 설유리 010-8510-4654

총무 배은희 010-9394-9495



지난 2013년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결성된 비바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KNN방송교향악단 부지휘자,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니엘S 김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위대한 유산'이라는 테마로 위대한 교향곡 작곡가 베토벤과 드보르작의 작품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들려주며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1학년 오민성이 하이든 '첼로협주곡'을, 크리스탈 피부와 장준규 원장이 '비목'과 '생명의 양식'을 노래 하며, 양산 하인이치와 원장 이혜진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곡으로 알려진 비탈리의 '사르노'를 협연한다.

김기현 리사이틀

일 시 | 2월 13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백현주 513-1009, 010-4585-2052



부산예술고등학교 작곡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기현의 리사이틀 무대. 김기현은 이번 무대에서 그가 작곡한 창작가곡 및 실내악곡 외에도 카푸스틴, 프로코피에프, 라흐마니노프, 슈베르트 등 피아노 독주곡을 직접 들려준다.

프로그램

카푸스틴/변주곡

프로코피에프/소나타

라흐마니노프/에튀드

슈베르트/즉흥곡

김기현/창작가곡 및 실내악곡

제17회 최윤희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2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우리아트 920-9545



현재 한국피아노학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피아노음악연구회 이사로 활동하며 경성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피아니스트 최윤희 독주회.

부산대학교 사범대학교 음악교육과와 계명대학교 음악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랑스로 유학, 파리고 등사범음악원(Ecole Normale de Musique de Paris)을 심사위원 전일직으로 수석졸업한 최윤희는 귀국 후 국내를 비롯 캐나다, 미국, 프랑스 등에서 초청독주회 및 리사이틀 무대로 호평을 받았으며, 국내외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슈만, 쇼팽 등 작곡가별 전곡연주회 등 250여 회가 넘는 무대를 통해 '빠어난 감수성과 서정적 피아니즘 그리고 뛰어난 기술까지 겸비한 피아니스트'로 인정받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소나타 제12번, 제23번, 제31번을 들려준다.

센텀 글로벌 오케스트라 제8회 정기연주회

일 시 | 2월 15일 수요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센텀 글로벌 오케스트라 010-3598-5657

지난 2008년 음악을 아끼고 사랑하는 청소년 연주자들로부터 창단된 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초청공연, 특별연주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지역 문화발전에 힘쓰는 센텀 글로벌 오케스트라의 8번째 정기연주회.

(사)T.I.F 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단원 겸 윈드오케스트라 악장, 부산클라리넷과르넷 리더, 부산덕터스클라리넷양상블 음악감독, 부경대학교 오케스트라 지휘자, 라온제나 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있는 지휘자 김태훈이 이끄는 센텀 글로벌 오케스트라는 앞으로 연주를 통해 청소년들이 풍부한 감성과 창의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제36회 정기연주회 라 무지카, 2017 신년음악회

일 시 | 2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VIP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

(학생 50%, 20인 이상 단체 20% 할인)

문의 |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070-8899-7308, 010-2323-6589



지난 2009년 7월 창단된 후 전문예술단체로 매년 50회 이상 폭넓은 연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가 2017년 새해를 맞아 마련하는 특별한 음악선물 '라 무지카, 2017 신년음악회'.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및 지휘자 홍성택이 지휘하고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스트라우스의 왈츠, 폴카를 비롯해 희망찬 2017년을 노래하는 감동의 선율로 꾸며진다.

- 예술감독, 지휘/홍성택
- 협연/백재진(바이올린, 동의대학교 교수)

피아니스트 이정원의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 'Die Liebe'

일 시 | 2월 16일 목요일 오후 8: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이정원 010-2861-2667



'따뜻한 치유를 선사하는 귀한 피아니스트'라는 호평을 받은 피아니스트 이정원이 마련하는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 'Die Liebe'.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 대학원을 전체 수석 졸업한 후 이태리로 유학, 밀라노 Academia

Musicale 'G, Donizetti'에서 디플로마를 획득한 이정원은 현재 부산듀오협회, 부산피아노학회 회원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프라노 박지인, 테너 김지호가 특별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노가 반주로서의 역할이 아닌 성악과 동등한 음악적 위치를 지닌 연가곡인 슈만의 '여인의 사랑과 생애', 시인의 사랑'을 통해 '리트'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반주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금정문화회관 기획공연

미디어아트 & 예술융합공연 '상상! 그 이상'

일 시 | 2월 18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1만원, 2층 5천원(만7세 이상 관람가능)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3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영화, 3D 맵핑 영상, 무용과 마음이 만나는 새로운 개념의 예술 융합 콘서트 '상상! 그 이상'. 뉴 미디어 아트기술인 Max, Quartz composer, VDMX, DMX 등을 이용, 살아서 움직이는 영화와 소리에 반응하는 그래픽이 영상으로 표현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달빛에 홀린 베에로(천재 화가 반고흐, 인생과 사랑을 이야기하다), 지베르니 비밀의 정원(빛의 화가 모네, 음악의 연금술로 말하다), 사랑의 묘약(세기의 사랑, 영화로 만나다) 등 3가지 주제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 피아노&스토리텔링/이지선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라온앙상블 연주회

일 시 | 2월 18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복합문화공간 무지크바움이 마련하는 살롱음악회 2월 무대 '라온앙상블 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위은영, 박주영, 비올리스트 손예경, 첼리스트 김보현, 피아니스트 양찬미, 음악진행자 고민지 등 또래 친구들로 결성된 라온앙상블은 음악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청중들에게 전달하고, 보다 가까이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라온'은 '즐거움'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프로그램]
헨델/파사칼리아 HWV. 432
슈베르트/현악3중주 D. 471
포퍼/콘서트 폴로네이즈 작품 14
B. Rossette/드라마 '하얀거탑' OST
라흐마니노프/보칼리제 작품 34 제14번
주페/시인과 농부' 서곡 등

부산바순앙상블 연주회

일 시 | 2월 20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바순니스트 전민익의 제자들로 구성된 부산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바순앙상블 '부산바순앙상블'의 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이은정과 바순니스트 전민익이 활동하고 있는 아우라 목관5중주 팀이 특별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바순 솔로에서부터 트리오, 쿼텟, 콰텟, 합주에 이르는 다양한 편성으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리베르탱고, 혼파이프, 터키행진곡, 존 덴버 'Perhaps Love' 등 우리 귀에 친숙한 대중적인 곡들로 관객들과 만난다.

- 지휘/전민익
- 특별출연/아우라 목관5중주
- 협연/백수경, 장원영

오충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23회 프롬나드 콘서트 '노자와 베토벤-희망'

일 시 | 2월 23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퀘어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상공회의소 990-7042

기업의 릴레이 후원으로 지난 2014년 10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프롬나드 콘서트 2017년 첫 무대. 127년 역사의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경제를 살려볼 수 있는 역사관 '부산챔버스퀘어'를 알리고, 음악과 함께하는 편안한 휴식의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해온 프롬나드 콘서트 2월 무대에서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자 '건명원(健明苑)' 초대원장을 맡고 있는 최진석 교수와 함께 철학이 더해진 음악공연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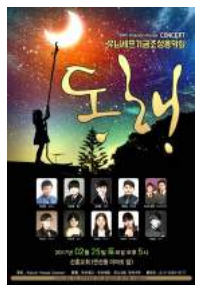
- 예술감독/오충근
- 특별출연/최진석



제64회 클라비어 하우스 콘서트 유니세프 기금조성 음악회

일 시 | 2월 25일 토요일 오후 5:00
연산동 신흥교회

입장료 | 초대
문의 | 관민정 010-3069-9777



부산예술고등학교 2학년 박상현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마련해온 제64회 클라비어 하우스 콘서트. 2015년 9월부터 매주 토요일 지역주민들을 위해 마련해온 클라비어 하우스 콘서트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신흥교회로 자리를 옮겨 유니세프 기금조성을 위한 특별한 무대로 마련된다.

'동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음악을 통한 나눔과 봉사에 의미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지구촌 어린이를 생각하며 스스로 마련하는 뜻깊은 무대이다.

- 피아노/박상현, 손어진
- 성악/임한슬, 백민정, 김대원
- 트럼펫/박새길
- 플루트/신남재
- 첼로출연/박신규, 유정연(Duo)
- 오르간/백선우
- 바이올린/박찬미

서예단 기타독주회

일 시 | 2월 26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경태 010-5489-2913



현재 부산페스티벌기타 앙상블 단원, 해운대기타포럼 '수요음악학' 멤버, 열린기타마니아 멤버로 활동 중인 기타리스트 서예단 독주회.

서예단은 지난해 제68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클래식기타 고등부 1위, 제43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클래식기타 고등부 2위, 제16회 서울시장배 전국학생음악콩쿠르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기타독주 명곡과 유니크한 연주곡 배치의 조화를 통해 클래식기타 독주의 다양성과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 [프로그램]**
망고레/왈츠 제4번
바흐/루트모음곡 BWV 998
M. Ponce/작은별
J. 투리나/소나타
G. 포레/돌리모음곡 작품 56 등

2017 리처드 용재 오닐 리사이틀 British & Romantic

일 시 | 3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S석 3만원
문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4년만에 선보이는 8집 정규 앨범 '브리티시 비올라' 출시를 기념해 열리는 리처드 용재 오닐 리사이틀.

리처드 용재 오닐이 가장 처음 들었던 비올라 곡의 작곡자로 그를 비올라 세계로 인도했던 작곡가 윌리엄 월튼을 비롯해 프랭크 브리지, 요크 보웬, 벤자민 브리튼 등 영국 작곡가들의 곡으로만 구성된 '브리티시 비올라'는 지난 2013년 앤드루 데이비스 경(Sir Andrew David)이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윌리엄 월튼의 '비올라 협주곡' 실황 녹음 등 전작들에선 선보이지 않았던 비올라 협주곡이 담겨져 있다.

- 1부에서는 '브리티시 비올라'의 정통 매력을 만날 수 있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발렌타인 데이에 들려주고 싶은 로맨틱한 비올라 곡을 만날 수 있다.
- 연주/리처드 용재 오닐(비올라), 신지아(바이올린), 스티븐 린(피아노),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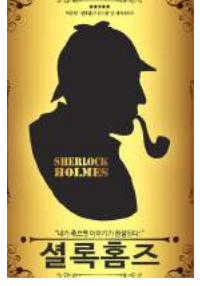
Play 연극

연극 '셜록 홈즈'

일 시 | 2016년 9월 22일(목)-OPEN RUN
오후 5:00, 8: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영국의 소설가 아서 코난 도일이 쓴 추리소설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탐정 '셜록 홈즈'의 모험담을 그린 연극. 셜록홈즈에게 수수께끼의 암호의뢰서가 도착하면서 사건 종료 50시간이 남은 게임이 시작된다. 사건을 추리할수록 점점 꼬여만 가는 단서들과 용의자들의 관계 속에서 셜록 홈즈의 고민은 깊어가고...

1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시대를 뛰어넘어 영화, 도서, 드라마, 뮤지컬, 가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창조되고 있는 셜록홈즈는 원작 본연의 추리 스타일, 서스펜스 속에서도 위트있는 연출로 글과 영상매체에서 느낄 수 없는 재미를 선사한다.

국민연극 '라이어 그 후 20년'

일 시 | 2016년 11월 16일(수)~2017년 2월 2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 균일 3만원(중·고·대학생 50% 할인)

문의 | ㈜디오르씨시어터컴퍼니 664-7880



배꼽 잡는 대사와 숨 돌릴 틈 없는 스피디한 전개,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설정으로 큰 인기를 끌며 국내 최장기 공연으로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연극 '라이어' 시리즈 2탄 '라이어 그 후 20년'.

1탄에 등장했던 주인공인 택시 운전사 존 스미스의 20년 후 이야기를 그린 '라이어 그 후 20년'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두 여인, 메리와 바버라를 몰래 만나며 행복한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존이 메리와 사이에서 낳은 딸 비키와 바버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케빈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되면서 찾아온 절체절명의 위기를 그리고 있다. '라이어 그 후 20년'은 씬 없이 이어지는 거짓말 속에 또 다른 거짓말이 엉키며 마지막에는 예상치 못한 반전과 기가 막힌 결말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코미극 '검정고무신'

일 시 | 2016년 12월 22일(목)~2017년 2월 2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용천지리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미니티켓 1600-1716



1960~70년대를 배경으로, 그야말로 고무신짝 하나 제대로 사신을 수 없었던 가난했던 그 시절, 한 가족사를 통해 웃음과 진한 감동을 전해주는 배리어티 코믹 휴먼 드라마 '검정고무신'.

신발공장에 다니던 어머니는 공장화재로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술주정뱅이가 되어버린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살다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간다. 동생들 뒷바라지에 중학교 진학도 포기한 채 공장에 다니는 장녀 은실, 무모하지만치 철딱서니 없는 둘째 무철, 엉뚱한 잔피만 부리는 셋째 기철, 그리고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는 거구의 막내 목돌, 이들 사남매의 고군분투가 웃음 속에 진한 감동을 전해준다.

연극 '작업의 정석'

일 시 | 1월 5일(목)~3월 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8:30, 일·공휴일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2012년 6월 첫 공연 이후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대학로를 대표하는 로맨틱 코미디 연극으로 자리 잡은 연극 '작업의 정석'.

'작업의 고수'인 두 주인공 공 서민준과 한지원은 서로 만나자마자 바로 '밀당'을 시작한다. 둘 다 연애 고수인 만큼 금세 상대방이 자신에게 '작업'을 걸고 있음을 눈치챈 주인공들은 누가 이기나 연애의 추를 걸고 승부를 시작하는데... 소위 연애의 '고수'를 자처하는 두 남녀가 우연히 마주치면서 벌이는 밀고 당기는 연애 명승부를 통해 관객들에게 작업의 비법을 전수하는 '작업의 정석'은 고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성의 심리를 코믹하면서도 현실감 있게 그려낸 로맨틱 코미디극이다

연극 '사랑일까?'

일 시 | 1월 5일(목)~3월 1일(수) 화~목요일 오후 8:00, 금요일 오후 5:00,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초콜릿팩토리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초콜릿팩토리 010-7550-1932



네이버에 게재되어 월 조회수 200만을 넘긴 남지은, 김인호 작가의 동명의 로맨틱 웹툰을 무대에 올린 연극 '사랑일까?'. 신입기자 두경은 지은의 인터뷰 약속에 '28분'이나 지각을 하고 만다. 지은은 약속에 늦은 두경이 마음에 들지 않고 두경은 초면부터 까칠한 지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첫 만남부터 이미지가 완전히 꼬여버린 두 사람, 만날 때마다 싸우기만 하다가 서로의 이픔을 공유하게 되면서 기상천외한 운명공동체로 엮이게 되는데...

쉽게 사랑하고 쉽게 헤어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상대의 아픔과 슬픔까지 내 것으로 품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관객들에게 묻는다.

• 각색/김진아 • 연출/조성진

연극 '쌈이 필요해'

일 시 | 1월 6일(금)~2017년 2월 1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주)플레이더부산 1600-0316



연애, 결혼, 출산 다 포기한 2030 삼포세대들이 꿈꾸는 현실 로맨틱 코미디극 '쌈이 필요해'.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에서도 잘 나가고 부족한 것이 없는 프리한 생활을 즐기고 사는 언론사 연애부 취재팀장 이선균과 그 앞에 나타난 새파랗게 어린 4차원 인턴 이나영, 잘나고 똑똑해서 안티도 많지만 알고 보면 허술한 그녀, 편집장 김정화, 그리고 연애가 설레지 않는 연애고자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신입기자 김석영 등 같은 직장 내 남녀의 좌충우돌 연애기가 현실적으로 펼쳐진다.

극단 맥 창단 30주년 기념공연 시리즈 2탄 뮤지컬 '프로포즈'

일 시 | 2월 9일(목)~19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6번출구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의 | 극단 맥 625-2117



지난 1986년 창단 후 전통 연회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 한국 연극의 정통성을 추구해온 극단 맥이 창단 30주년을 맞아 마련하는 기념공연 시리즈 두 번째 무대 뮤지컬 '프로포즈'.

한 동네에서 오빠, 동생으로 지내던 지도총과 오빛나, 어느 날 갑자기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게 된다. 지도총의 적극적인 구애가 시작되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도 전에 사소한 의견다툼이 먼저 시작되고... 과연 지도총의 청혼을 오빛나는 어떻게 받아줄까? 안톤 체홉의 '청혼'을 새롭게 각색한 뮤지컬 '프로포즈'는 두 남녀의 청혼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해와 반목, 그리고 화해를 통해 인간의 아집을 코믹하게 풍자한 보드빌(춤과 노래를 결집한 풍자적인 통속희극) 풍의 단막극으로, 공연마다 오직 한 명을 위한 프로포즈 이벤트를 함께 펼친다.

• 출연/이상미, 박강록, 이태규

2017 The 최현우 Ask? & answer!

일 시 | 2월 11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2일 일요일 오후 1:00(오후 5:00 공연을 단체 예매로 대신)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 7천원, S석 6만 6천원
 A석 5만 5천원(초중고생 및 2017년 대학교 신입생 30% 할인)
문의 | ED엔터테인먼트 1800-3280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대표 미술사 최현우가 프로 데뷔 2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새로운 매직쇼 '2017 The 최현우 Ask? & Answer!'. 아시아인 최초의 국제 미술 대회 수상, FISM 최연소 심사위원 등에 빛나는 세계적인 미술사 최현우는 이번 새로운 시도로 국내 미술의 패러다임을 이끌어오면서 그동안 1,000회가 넘는 공연으로 86만 3천 명의 관객을 동원하기도 했다. 미술사 최현우와 관객이 미술에 관해 묻고 답하는 새로운 형식의 이번 무대에서는 11톤 트럭 5대 규모의 대규모 세트가 사용되는 역대급 스케일과 최신 기술을 접목한 무대 연출은 물론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미술 등으로 관객들을 환상적인 매직의 세계로 안내한다.

꿈꾸는 아이 14번째 작품 명작영어뮤지컬 '애니(Annie)'

일 시 | 2월 17일-18일 금-토요일 오후 4:00,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꿈꾸는 아이 010-7503-6564



뮤지컬 공연을 통해 예술적 감각 및 창의력, 자신감을 키우고 영어 노래와 대사를 통해 상황별 실용 영어를 교육함으로써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있는 극단 '꿈꾸는 아이'가 마련하는 14번째 영어뮤지컬 '애니' 1933년 뉴욕 시립 고아원, 애니에게는 11년 후 찾아오겠다는 부모의 편지와 목걸이만 있을 뿐이다. 애니는 언제가 찾아올 부모님을 기다리지만 고아원 원장인 주정방이 헤니원장은 혹독하게 일만 시킨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 워벅스 씨의 비서 그레이스가 크리스마스 연휴를 함께 보낼 고아를 고르러 왔다가 애니를 데리고 가고 무뚝뚝한 워벅스 씨는 애니를 보면서 마음을 열어 입양을 결심하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애니의 이야기가 상황과 사건으로 전달되는 쉬운 영어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간다.

Concerts 콘서트

2017 SHINHWA LIVE 'UNCHANGING' IN BUSAN

일 시 | 2월 11일 토요일 오후 6:00
 벅스코 제1전시장
입장료 | VIP 15만 4천원, SR석 14만 3천원
 R석 13만 2천원, S석 11만원
 A석 9만 9천원(미취학아동 입장불가)
문의 | (주)WSM 1566-5490

김윤아 정규 4집 발매기념 앵콜 콘서트-부산 '타인의 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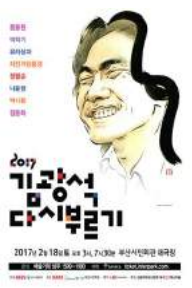
일 시 | 2월 18일 토요일 오후 7:00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R석 11만원, S석 8만 8천원
문의 | (주)인터파크 1544-1555

휘성 전국투어 콘서트 '온에어'

일 시 | 3월 4일 토요일 오후 7:00 KBS부산홀
입장료 | VIP 13만 2천원, R석 8만 8천원
 S석 6만 6천원, A석 5만 5천원
문의 | (주)컴퍼니 1661-4723

2017 김광석 다시부르기

일 시 | 2월 18일 토요일 오후 3:00,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 9만 9천원, R석 7만 7천원
 S석 5만 5천원(초중학생 이상 관람가)
문의 | 예술기획 성우 1599-1980



대중들의 삶과 함께하는 진솔한 노래로 대중들의 기억 속에 남은 가객 김광석을 추억하는 '2017 김광석 다시부르기'. 1984년 데뷔해 수많은 명곡을 남기고 서른셋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김광석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많은 동료 및 후배 가수들이 김광석을 기리고자 자발적으로 시작된 '김광석 다시부르기'는 한 가수를 추모하는 단일 공연으로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최장기, 최대 규모의 대중 음악 콘서트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무대에서는 김광석과 절친한 동료였던 동물원, 박학기, 유리상자, 자전거 탄 풍경, 장필순을 비롯해 나윤권, 박시환, 정동하 등 후배 뮤지션이 출연, 그가 살아 생전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그의 노래를 들려주며 그를 추억한다.

- 출연/동물원, 박학기, 유리상자, 자전거 탄 풍경, 장필순, 나윤권, 박시환, 정동하

Event 행사

White Night in Busan

일 시 | 2016년 12월 23(금)-2017년 2월 26(일) 영화의 전당 크리스마스 마을(영화진흥위원회 부산사옥 부지)
입장료 | DAY(10:00~16:00) 1만원
 NIGHT(17:00~22:00) 1만원
 ALL(10:00~22:00) 1만 5천원
문의 | 영화의 전당 731-5830

유럽의 유명 겨울관광축제인 '크리스마스 마켓'을 컨셉으로, 대형 눈썰매장을 비롯해 각종 상설공연 및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펼쳐지는 'White Night in Busan'.

부산시네마아카데미 시네바움아트홀 2월 아카데미

일 시 | 2월 6일(월), 9일(목), 13일(월), 16일(목), 20일(월), 22일(수), 27일(월) 오후 7:30
 부산시네마아카데미 시네바움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학생 1만원(음료 포함)
문의 | 부산시네마아카데미 · 시네바움 010-3827-2995, 010-2774-3455

- 2월 6일(월) 오후 7:30 부산국제영화제 돌아보기
 • 강사/김지석(부산국제영화제부집행위원장 부산국제영화제수석프로그래머)
- 2월 9일(목) 오후 7:30 재즈 매니아! 양돈규의 재즈투어 '미치도록 사랑한 영화 속 재즈이야기'
 • 강사/양돈규(재즈클럽MONK대표)
- 2월 13일(월) 오후 7:30 책과 지식의 역사(1)
 • 강사/강영관(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 2월 16일(목) 오후 7:30 시인과 여성 사이, 영화 '실비아'
 • 강사/홍옥숙(한국해양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 2월 20일(월) 오후 7:30 박근수 음악평론가의 클래식투어 '겨울 나그네'
 • 강사/박근수(음악평론가)
- 2월 22일(수) 오후 7:30 이수원의 시네필리아 '이중 배상, 필름 누아르의 치명적 유혹'
 • 강사/이수원(영화평론가,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 2월 27일(월) 오후 7:30 오늘날의 미술생태계
 • 강사/이성훈(예술철학자 해운대달맞이길 · 북갤러리 · 내서재대표)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Romance Instrumental Music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 무료

문의 | 정두환 011-574-0423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현재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에서 매주 진행하고 있는 ‘좋은음악 & 좋은만남’은 음악이 사람들 속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고 만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만남의 장이다.

[프로그램]

2월 7일(595회) Romance String Music

2월 14일(596회) Romance Wind Instruments Music

2월 21일(597회) Romance Accordion

2월 28일(598회) 이달의 책읽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밀란 쿤데라 저/ 민음사)’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15강
베토벤의 생애와 대표작품

일 시 | 2월 14일 화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_busan



클래식음악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평론가 곽근수가 진행하는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베토벤의 생애와 대표작품 세 번째로 마련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베토벤이 귀머거리의 상태와 화해하면서 매년 수많은 걸작들을 남겼던 그의 생애 후반기를 살펴봄에 그가 남긴 장르별 대표작을 최고의 명연으로 들어본다.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김성민의 예술기행 제10강

김성민의 예술기행 플랑드르 회화 2

일 시 | 2월 17일 금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아트 커뮤니케이터 강사 김성민과 함께하는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김성민의 예술기행’.

김성민은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독학으로 미술을 공부, 바티칸, 우피치 미술관 등 이탈리아 현지 미술관에서 10년간 작품

해설을 해오다 지난 2016년 귀국, 예술강연강사로 활동 중에 있다.

북유럽의 플랑드르 회화의 기법과 사조를 알아보았던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강좌에서는 600년 전 너무나 독특한 개성의 그림을 그려 20세기 초현실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히에로니무스 보스(Hieronimus Bosch 1450?~1516)의 작품을 만나보고 16세기 유럽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종교개혁으로 급변했던 플랑드르 지역의 이야기와 농민화가 피에테르 브뤼겔(Pieter Bruegel 1525?~1569)를 만나본다.

제114회 알바트로스 시낭송회

일 시 | 2월 18일 토요일 오후 5:00

서면 신세계인파 5층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회장 김옥균 010-6367-0149

부산알바트로스시낭송문학협회가 마련하는 제114회 알바트로스 시낭송회로, 이정록 시인 초청특강, 시낭송, 축하음악회 등이 펼쳐진다.

제2회 시낭송가 이분엽 포이트리(Poetry) 콘서트

일 시 | 2월 22일 수요일 오후 7: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이분엽 010-2559-0149



이분엽시낭송가카데미와 무지크바움이 주최하는 시낭송가 이분엽의 포이트리(Poetry) 콘서트. 두번째 무대 전문시낭송가의 시낭송 무대와 시노래 합창, 초청음악가 연주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추억의 영상음악회
도병찬의 뮤직파일

일 시 | 2월 28일 화요일 오전 11: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시민회관 630-5228



30여년 정통음악 DJ로 있으며, 당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기 음악프로그램 ‘도병찬의 뮤직파일’을 진행했던 전 KBS 라디오 프로듀서 도병찬의 진행으로 마련되는 ‘도병찬의 뮤직파일’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아날로그 감성을 되새길 수 있는 각종 영화음악과 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만의 구수한 입담과 맛깔스러운 진행으로 감상할 수 있다.

시를 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시마당 제170회 시낭송대회

일 시 | 2월 28일 화요일 오후 6:30

새호재병원 대강당

문의 | 회장 인태봉 010-8374-0626

Display 전시

이중섭, 백년의 신화

일 시 | 2016년 10월 20일(금)~2017년 2월 26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전시실

입장료 | 일반 7천원, 초·중·고 4천원(만 7세 미만 유아 및 65세 이상 무료, 문화가 있는 날 일 반 4천원, 초·중·고교생 2천원)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 731-7128

www.jungseob.com



제3회 신수유물소개전

묵국도墨菊圖와 묵포도墨葡萄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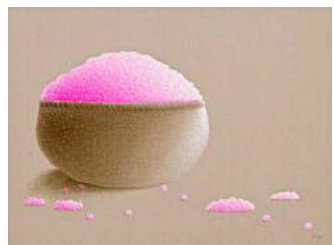
일 시 | 2016년 10월 25일~2017년 2월 26일

부산박물관 동래관 고려실

문의 | 부산박물관 610-7111

소울아트스페이스 개관 11주년 기념전
예술가의 눈-An Eye for Art

일 시 | 2016년 12월 2일(금)-2017년 2월 22일(금)
소울아트스페이스
문 의 |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www.soulartspace.com



BNK아트갤러리
‘다시, 빛을 말하다’展

일 시 | 2016년 12월 7일(수)-2017년 3월 3일(금)
BNK아트갤러리
문 의 | BNK아트갤러리 246-8975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
KOREA ON/OFF展

일 시 | 2016년 12월 17일(토)-2017년 2월 22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www.goeunmuseum.kr

프랑스의 국제적인 사진창작집단 땅당스 플루(Tendance Floue) 소속 작가 12인이 지난 16개월 동안 한국의 모습을 각자의 독창적인 시선으로 담아 낸 'Korea On/Off'展.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활짝 열린 방**

일 시 | 2016년 12월 20일(화)-2017년 4월 2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소전시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시간의 산책자들-임응식, 정인성

일 시 | 2016년 12월 22일(목)-2017년 2월 26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전시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한국의 1세대 사진작가이자, 서울과 부산의 후배 사진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교육자로서도 공통점이 너무나도 많은 임응식, 정인성 작품전.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욕망의 메트로폴리스

일 시 | 2016년 12월 22일(목)-2017년 4월 2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대전시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기획
해와 달의 서커스

일 시 | 2016년 12월 22일(목)-2017년 2월 26일(일)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롯데갤러리 광복점 신년기획
‘꿈꾸는 정원’展

일 시 | 1월 11일(수)-2월 5일(일)
문 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1

현대 사회인의 고독과 외로움 등을 역설적으로 표현, 화폭에 담아내는 강지만과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일상의 소소한 장면들을 따뜻하고도 유쾌한 시선으로 그려내는 김경민, 작은 회화작품에서 대형 설치작업까지 폭넓은 작업으로 즐거운 상상의 세계로 인도하는 안윤모 등 사소한 것의 소중함을 상상력으로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이는 롯데갤러리 광복점 신년기획전 '꿈꾸는 정원'展.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젊은 부산작가 프로모션 'Big Match'-송현철 'The Hero'

일 시 | 2016년 12월 22일(목)-2017년 4월 2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대전시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Art Platform'전

일 시 | 1월 11일(수)-2월 25일(토) 리빈갤러리
문 의 | 리빈갤러리(746-9334)

송환아 작품전

일 시 | 2월 3일(금)-2월 9일(목)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박경혜 **‘아이, 행복을 꿈꾸다’展**

일 시 | 1월 17일(화)-2월 24일(금)
갤러리 공감
문 의 | 갤러리 공감 860-0114

‘알폰스 무하’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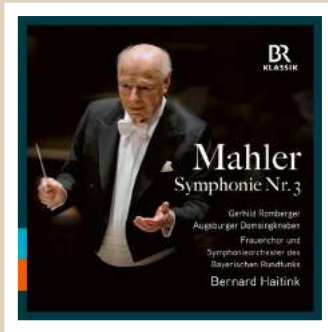
일 시 | 2월 8일(수)-3월 5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1

남도의 목향전

일 시 | 2월 10일(금)-2월 28일(화)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REC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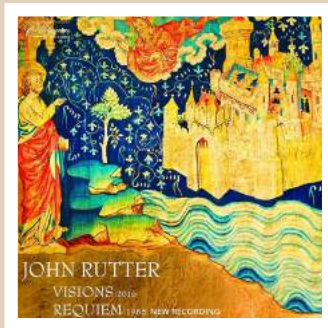


베르나르트 하이팅크 '말러 교향곡 제3번'

베르나르트 하이팅크(지휘),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게힐트 롬베르커(메조소프라노), 아우크스부르크성당 소년 합창단, 바이에른 방송합창단

▶하이팅크만의 '평온한 힘'으로 그린 말러 교향곡 3번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과 60년 이상의 인연을 맺어온 베르나르트 하이팅크는 이 악단의 자체 레이블(BR클래식)을 통해 브루크너 교향곡 5번, 말러 교향곡 9번을 취임한 바 있다. 이 앨범은 2016년 6월 15일~17일 가슈타익에서 있었던 실황앨범으로, 1악장(CD1/35:49), 2~6악장(CD2/65:39)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악은 '온화'하게, 관악은 '편안'하게 가져가는 하이팅크는 한마디로 '평온한 힘'으로 6개의 악장을 관통한다. 4악장에서 메조소프라노 게힐트 롬베르커가 안정감을 더해주고, 6악장에 이르면 마치 조용한 성당에 앉아 있는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존 루터 '비전, 레퀴엠'

템플 처치 소년 합창단, 캠브리지 싱어즈, 오로라 오케스트라, 존 루터(지휘)

▶2016년 신작 '비전'과 루터의 대표작 '레퀴엠'의 신녹음

영국합창의 거장 존 루터가 2016년에 '비전'이라는 새로운 작품을 발표했다. 이 곡은 환상을 담은 네 개의 텍스트를 가사로 한다. 첫 곡은 예루살렘을 상상의 도시로 그린 중세 성가이며, 둘째 곡은 이사가가 예언하는 메시아, 셋째는 시온의 멸망에 대한 비가, 넷째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천국의 아름다운 이미지이다. 그레고리안 찬트와 윌리엄 버드의 찬가부터 서정미 넘치는 멜로디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이 하나로 융화되어 있으며, 독주 바이올린의 활약이 돋보인다. '레퀴엠'은 아름다운 멜로디가 가득한 루터의 대표작으로, 2016년 신녹음이다.



슈베르트 '일곱 개의 서곡, 다섯 개의 미뉴엣, 다섯 개의 독일무곡 (부조니 편곡판)'

마르코 빈첸치(피아노)

▶피아노 편곡의 귀재 부조니에 의해 편곡된 슈베르트 숨겨진 명곡들

20세기 초 유럽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명성이 높았던 페루치오 부조니는 작곡가로서 많은 오리지널 작품을 남겼지만, 오늘날에는 피아노 편곡이 자주 연주된다. 그는 원곡의 인상을 그대로 살리면서 피아니스트답게 편곡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연주 레퍼토리로 삼고 있다. 이 음반은 그 중 슈베르트 편곡 전곡으로, 관현악곡인 일곱 개의 서곡들과 삼중주곡인 미뉴엣, 그리고 독일무곡을 수록했다. 완벽한 편곡과 부조니 음악연구소 소장인 마르코 빈첸치의 슈베르트적인 연주가 결합되어 본래 피아노 소품으로 생각될 정도이다.

BOOK

박현주 · 북칼럼니스트

❖ 한국건축 속의 인문학

서경원 지음 / 담디 / 352p / 1만 5천 원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하회마을'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우리의 민속마을이다. 2010년 8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하회마을은 풍수지리로 보면 연화부수형이다. 물 위에 떠 있는 연꽃 모양이라는 형태라는 의미이다. 연꽃은 물 위에 뜨는 꽃, 그러니 물 가까운 곳이 명당이다. 하회마을은 배산임수가 아니라 낙동강 강가 벌판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마을의 집들도 물의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강가를 향해 사방으로 열려 지어졌다. 그러나 마을이 들판에 있다 보니 땅의 지기가 우마차나 사람들의 통행으로 손상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 그 위험에서 땅의 지기를 보호하고 마을의 안녕을 위해 길을 구불구불 좁게 내고 집집마다 흙으로 담장을 친 것이다. 마을이 자리 잡는 것에도, 또 집을 짓는 것에도 우리 민족은 이처럼 많은 생각을 담아왔다. 이 책은 우리 전통건축을 소설처럼 재미있게 풀어 소개한다. 하나의 건물은 개인적이건 사회적이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건물이 담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고 그 문화들이 고스란히 건축물에 담겨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한국건축에 담긴 우리 문화의 의미를 말해주는 책이다.

❖ 작품의 고향

임종업 지음 / 소동 / 400p / 2만 2천 원



제주를 그린 강요배, 통영을 그린 전혁림, 쌀부대에 고향을 그린 이종구, 인왕산을 그린 겸재 정선. 이 화가들은 우리 땅과 고향을 사랑했고 그들의 화폭에 담았다. 이 책은 우리 땅과 시대를 뜨겁게 작품에 담은 작가와 작품을 소개한다.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으로 돌아가 작업했던 작가들, 작가의 의식을 반영하는 제2의 고향을 찾아 그곳에서 살며 치열하게 작업한 작가들의 그림에는 치열한 삶이 녹아있다. 장소를 담아낸 그림은 시대를 담는 일이기도 하다. 그 작품의 고향을 찾아간 저자의 글에는 이들 작가와 작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다. 전혁림, 강요배, 이종구, 겸재 정선은 고향의 산천과 사람을 작품에 담았다. 황재형은 태백을 찾아가 광부가 되고 그곳에서 수십 년째 살며 작업하고 있다. 송창은 임진강에서 현대사를 그려냈다. 박대성, 서용선, 김기찬처럼 무의식의 끌림과 같은 안식처로서 '장소를 선택해 작품에 담은 작가도 있다. 이들의 작품의 고향을 찾아가는 길은 '장소와 '시대를 중심으로 한국미술의 큰 흐름을 되돌아보는 일이었다. 또한 한국미술사에서 그동안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던 민중미술의 맥을 짚어내는 일이기도 하다.

❖ 오래된 디자인

박현택 지음 / 안그래픽스 / 312p / 1만 5천 원



국립중앙박물관 디자이너 박현택의 <오래된 디자인>이 개정판으로 출간됐다. 2013년 출간되어 독자에게 꾸준하게 사랑받아 온 이 책의 개정판에서는 기존 내용을 충실히 소개하되 글자와 도판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판형 및 체책 방식에 변화를 주어 독서 기능성도 한층 높였다. 박물관은 오래된 물건을 모아놓은 곳이며, 오래된 것이란 시간의 흐름을 견딘 생명력 있는 것을 말한다. 저자는 오래된 것을 지긋이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오래된 것이 무조건 좋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딱히 오래된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새로운 것이 많이 등장하는 세상이니 오래된 것이나 지속적인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려 한다. 그리고 그러한 대상을 통해 좋은 디자인을 찾기에 앞서 좋은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볼려 한다." '주먹도끼' '요강' '청자병' '세한도' 등에서부터 우리 선배들의 일상품인 '등잔' '절구' 등까지 저자는 다양한 사물의 디자인이 등장시킨다. 예술이 위대하다 해도 결코 삶에 앞설 수 없다는 시각으로, 물건에 담긴 삶의 진실을 살펴보고 인문학적 시각으로 확장시켜 준다.



NEWS

2월 다양한 무대로 관객과 만나는 부산시립예술단

부산시립합창단

대만 가오슝시 '2017 가오슝 등축제' 참가

매년 대만 가오슝시에서 열리는 '가오슝 등축제'에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초청받아 다양한 무대를 선사해온 부산시립예술단이 올해도 2월 11일부터 열리는 '2017 가오슝 등축제'에 초청받아 우리 문화의 멋과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부산의 자매도시인 가오슝시 아이허(愛河) 강변에서 지난 2001년부터 펼쳐지고 있는 '가오슝 등축제'는 대만의 가장 중요한 전통축제 중 하나로, 매년 250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올해 '가오슝 등축제'에는 부산의 합창문화를 이끌어가는 부산시립합창단이 부산의 문화사절단으로 초청받아 풍성한 울림과 감동이 있는 무대로 축제를 찾는 관객들과 만난다. 부산시립합창단은 2월 11일 열리는 개막식과 12일 축제 퍼레이드에 참가할 예정으로 2월 10일 공연길에 오른다.

부산시립합창단

교류연주회 '봄! 그 사랑을 노래하다'

부산시립합창단은 3월 2일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안동시립합창단과의 교류공연 '봄! 그 사랑을 노래하다'를 갖는다. 이번 무대는 부산과 안동, 두 도시의 문화적 교류를 통해 화합을 다지는 무대로, 부산시립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전진의 지휘로, 요한 스트라우스 2세 '봄의 왈츠'를 비롯해 봄을 주제로 한 우리 가곡 '강 건너 봄이 오듯(임금수 곡)', '봄이 오면(김동진 곡)' 등을 지휘자 최상윤이 지휘하는 안동시립합창단은 '봄처녀(신동수 편곡)', '산넘어 난촌에는(이범준 편곡)', '벚꽃엔딩(이선택 편곡)'등 봄을 노래한 아름다운 합창곡을 들려준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18 평창동계올림픽 G-1주년 페스티벌 문화예술공연 참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1년 앞두고 2월 9일부터 펼쳐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G-1주년 페스티벌 문화예술공연'에 부산 대표로 참가한다.

'당신이 평창입니다(it's you, PyeongChang)'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이번 페스티벌에는 강원도 내 18개 시·군 공연단은 물론 전국 시·도 공연단, 5개의 국립예술단, 해외 공연단 등 55개 국내외 공연단이 참가하는 문화예술공연 외에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G-1주년 페스티벌 개막식'과 '경포세계불꽃축제', 'K-드라마 in 평창' 등 대규모 축제와 공연·전시도 열린다. 문화예술공연은 2월 9일부터 19일까지 강릉의 특설무대, 해람문화관, 단오문화관 등 3곳의 공연장에서 55개 참가 공연단이 매일 무대에 오르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2월 10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공연을 갖는다.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 부수석 정선호(소리), 수석 김경수(태평소)와 국립부산국악원 단원 최재근(성주굿)이 협연자로 출연, 창작국악관현악 '화랑'(백규진 곡)을 비롯해 성주굿을 위한 국악관현악(이준호 편곡), 태평소 협주곡 '연가'(조원행 곡), 소리가 있는 창작관현악 '추억의 동백섬'(백성기 곡)을 들려준다.

부산시립무용단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부산시립무용단에서는 2월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맞춤형 공연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진행한다.

그동안 부산문화회관을 자주 찾을 수 없는 지역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시민들을 만난 부산시립무용단은 이번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통해 영화, 가요, 민요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음악을 배경으로 우리춤의 아름다움과 서정성, 신명을 담아낸 '드라마와 함께하는 춤 여행'으로 우리춤의 매력을 전한다. 이번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은 부산 시내 복지관을 대상으로 1월까지 신청받아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펼쳐진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오픈

대극장 1층 로비, 다양한 서비스 제공



부산문화회관은 정기회원을 위한 쾌적한 관람환경과 다양한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회원 전용라운지를 오픈했다.

정기회원 전용라운지는 지난 2010년 4월, 대극장 리모델링 후 대극장 2층 로비에 한때 조성되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휴식공간으로만 이용되었다. 이번에 대극장 1층 좌측 매표소 앞에 조성된 정기회원 전용라운지는 휴식공간과 함께 다양한 공연정보를 정기회원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인터넷 검색과 음료 및 과자, 정수기 등 편의시설을 구비하면서 정기회원들에게 일반인과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극단) 기획공연, 정기연주회, 특별연주회를 보다 저렴하면서도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 다양한 할인혜택과 부대서비스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올해 (재)부산문화회관 출범에 발맞춰 새롭게 바뀐 정기회원제도는 기존 회원제도보다도 더 많은 할인매수와 높은 할인율,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회원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부산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전화번호 변경

2017년 재단법인으로 출범하면서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 전화번호가 새롭게 변경됐다.(55p 참조) 이번 전화번호 변경에 따라 부산문화회관 대표 전화번호는 607-6000이며, 부산문화회관은 607-6XXX, 부산시립예술단은 607-31XX으로 시작된다.

한편,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역시 기존 culture.busan.go.kr에서 www.bscc.or.kr로 새롭게 변경됐다. 기존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던 정기회원(인터넷회원 포함)들은 새로 바뀐 홈페이지에서도 기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가능하다.

또, (재)부산문화회관 출범과 함께 많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스토리채널, 블로그(네이버), 유튜브 등 6

개 채널의 SNS 계정도 새롭게 개설되면서 보다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및 SNS 계정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 www.bscc.or.kr

페이스북 | www.facebook.com/vivabscc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vivabscc

트위터 | twitter.com/vivabscc

카카오톡스토리채널 | story.kakao.com/ch/bsccorkr

블로그(네이버) | blog.naver.com/bsccorkr

유튜브 | www.youtube.com/channel/UCj-1suSmm546J3PPRJ9B2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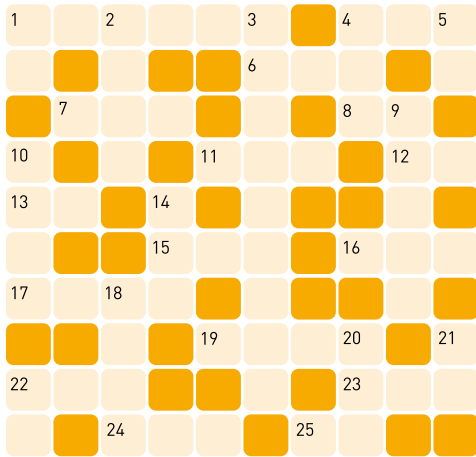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열쇠

- 루페르칼리아(Lupercalia)라는 고대 로마시대의 축제에서 시작된 날로, 매년 2월 14일 연인에게 사랑의 의미로 초콜릿을 선물한다. 이날을 기념해 2월 14일 부산문화회관에서는 연인들을 위한 ○○○○○ 콘서트를 마련한다.
-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고 보를 얹은 다음 마룻대를 올릴 때 고사를 지내는 의식.
- 조선시대 임금의 의복을 진상하고, 대궐 안의 재물과 보물 일체의 간수를 맡아보던 관서.
- 극예술과 극적인 춤, 음악을 혼합한 장르로, 엘리자베스 시대의 극작가들이 대사를 보강하기 위해 단단한 발라드 연주를 삽입한 데서 유래했으며, 빈 풍의 오페라와 영국의 희극 전통을 거쳐 발전했다.
-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도세자의 가족사에 집중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왕이아 하던 아버지 영조와 단 한 순간만이라도 아들이고 싶었던 세자 사도의 이야기를 조선역사에 기록된 가장 비극적 가족사로 풀려낸 이준익 감독의 영화.
- 1,600년 전후에 성립한 가락곡, 또는 그 형식.
- 1980년에 개봉한 프랑스의 영화. 데뷔작이었던 이 영화로 당시 15세였던 소피 마르소는 일약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랐다.
- 경상남도 하동지역의 옛 지명. 지리산 남쪽 설장강 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고려 때 생계사로 가는 길목의 벚꽃이 만발하는 곳에 있다 하여 ○○○는 명칭이 붙었다.
-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하던 천문관측기. 고대 중국의 우주관인 혼천설(渾天說)에 기초를 두어 서기전 2세기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한 자료는 없으나, 삼국시대 후기에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만들어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 배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인 티(舵, rudder)의 조작을 담당하는 선원.
- 고려시대에 지어진 작자 미상의 가요. '서경별곡(西京別曲)', '만전춘별사(滿殿春別詞)'와 함께 고려가요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남녀간의 애정을 주로 다루었던 다른 작품에 비해 삶의 비애와 고뇌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바(Bar)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에서 유래된 말로, 바에서 에스프레소를 기본으로 하는 음료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커피를 추출하는 사람을 총칭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 고려, 조선시대 문관 관료의 총칭. 중국 고대 주(周)나라 시대에 천자(天子)나 제후(諸侯)에게 벼슬한 대부(大夫)와 사(士)에서 비롯된 명칭이다.
- 1920, 30년대 영국의 영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영국의 대표적인 감독. 1940년대부터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헨리 중',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싸이코' 등 영화사의 걸작들을 만들었다.
- 전국을 하나의 구로 하는 선거구.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의 한 종류로, 이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을 ○○○의원이라 하며, 이에 대립되는 선거구를 지역구라 한다.
- 한 외계인과 지구어린이의 따뜻한 우정을 그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영화 개봉 1개월 만에 흥행수입 1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3개월 만에 2억9천만 달러를 벌어들여 '스타워즈'의 기록을 깨고 흥행사상 최고의 인기를 모았다.

세로열쇠

- '춤 추다'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ballare'에서 유래된 용어로 음악, 무대장치, 의상, 팬타미민 등을 갖추어 특정한 주제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무용.
- 다른 산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돌이라도 자기의 욕(玉)을 가는 데에 소용이 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일지라도 자신의 학덕을 연마하는 데에 도움이 됨을 비유하는 사자성어.
- 영국의 수학자이자 작가인 찰스 루트위지 도지슨이 루이스 캐럴이라는 필명으로 1865년에 발표한 소설. 토끼굴에 들어간 앨리스가 환상의 세계에서 겪는 모험 이야기를 담고 있다.
- 월정사의 말사로 있으나, 국내에서 유일하게 문수보살상을 모시고 있는 문수사당의 종신지로, 조선의 7대 임금인 세조가 이곳에서 기도하던 중 문수보살을 만나 불치의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매우 유명하다. 신라 성덕왕 24년(725)에 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된 동종이 있다.
- 토막친 생선에 소금과 밥을 섞어 발효시킨 음식.
- 조선 후기에 생긴 신민요(新民謠).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산천의 도라지~'
- 문화재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 위령 미사 때 드리는 음악. 레퀴엠.
- 조선시대 작자, 연대 미상의 한글 고대소설. 옛날부터 전하는 고구려의 설화 '구토지설(龜兔之說)'에 재미있고 우스운 익살을 가미한 내용으로 한글이 생기자 정착된 의인소설(擬人小說)이다.
- 남태평양 중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속하는 소시에테 제도의 주도(主島). 폴리네시아 민족의 중심 거주지로서 독자적인 전통 문화를 발전시켰는데 17세기 이후 유럽인들이 찾아오면서 '남해의 낙원', '비너스의 섬'이라고 불렀다. 프랑스의 후기인상파 화가였던 고갱의 활동무대에도 유명하다.
- 타이의 수도.
- 중국 전한(前漢)의 사마천(司馬遷)이 상고시대의 오제(五帝)~한나라 무제 태초년(BC 104~101년)의 중국과 그 주변 민족의 역사를 포괄하여 저술한 통사.



공간소극장 | 051-611-8518 큰집 | 051-245-3320
 조은극장 | 1588-2757 엘로인 플라워 | 080-337-3370



제 야 음 악 회 판 도 라
 로 장 다 스 키
 섬 진 강 잉 카 칼
 강 그 히 말 라 야
 마 술 피 리 상
 베 래 드 래 곤 볼 곡
 사 버 쇼
 메 이 저 리 그 이 이 제 이
 무 작 만 평 극 상
 초 권 을 영 장 구

1월호 퍼즐 당첨자

엘로인플라워 오현진(금정구 금단로)
 최현욱(남구 진남로)

공간소극장 김수현(금정구 금정도서관로)
 이소영(남구 고동골로)
 이은혜(수영구 수영성로)
 최주연(서구 구덕로)
 하연화(중구 중앙대로)

조은극장 강경희(수영구 과정로)
 김원희(해운대구 장산로)
 박은정(중구 중앙대로)
 이경아(사하구 괴정로)
 최경훈(서구 대신공원로)

큰집식사권 김나영(수영구 광남로)
 박현주(서구 망양로)
 정영주(서구 보수대로)
 최서연(사하구 제석로)
 최현진(해운대구 우동2로)



(재)부산문화회관 전화번호 안내

대표번호 607-6000

대표이사실 607-6006

경영기획본부장 607-6007

정책기획팀

팀장 607-6010

정책기획팀 607-6011~3

경영지원팀

팀장 607-6020

경영지원팀 607-6021~4

시설관리팀

팀장 607-6030

시설관리팀 607-6031~7

문화예술본부장 607-6008

공연기획팀

팀장 607-6050

공연기획팀 607-6051~9

대관(공연장) 607-6058

전시교육

팀장 607-6060

전시교육팀 607-6061~3

대관(전시실) 607-6062

홍보마케팅

팀장 607-6070

홍보마케팅팀 607-6071~6

보도자료 607-6071

홈페이지 607-6073

정기회원 607-6075

월간〈예술에의 초대〉 607-6076

무대기술

팀장 607-6080

무대기술팀 607-6081~8

607-6091~7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행정팀

팀장 607-3100

행정팀 607-3101~2

예술감독실

국악관현악단 607-3180

합창단 607-3152

무용단 607-3186

극단 607-3160

청소년교향악단 607-3190

소년소녀합창단 607-3170

서양음악팀

팀장 607-3110

교향악단 607-3111~4

합창단 607-3115~6

청소년교향악단 607-3117

소년소녀합창단 607-3110

전통예술·극단팀

팀장 607-3120

국악관현악단 607-3124

무용단 607-3121~2

극단 607-3123

예술단 연습실

교향악단 607-3130~2

국악관현악단 607-3135~7

무용단 연습실 607-3140

의상실 607-3141

탈의실 607-3142~3

극단 607-3195

청소년교향악단 607-3150

소년소녀합창단 607-3145

예술단 노동조합 607-3165

청경실 607-6180~1

2017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신규단원 모집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에서는 부산음악의 미래를 선도할 우수 단원을 공개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전형내용

가. 모집인원 : **15명**

바이올린(4), 비올라(1), 첼로(3), 더블베이스(2), 오보에(1), 바순(1), 호른(1), 트럼펫(1), 튜바(1)

나. 응시자격 : 만 30세 이하의 부산 소재 중·고·대학생 또는 대학졸업자(인제대학교 포함, 대학교 휴학생 가능)

다. 응시곡목

· 자유곡 / 협주곡 또는 소나타 빠른 한 악장(무반주)

· 지정곡 / 악보는 원서접수 시 배부

※ 단, 우편 접수자는 이메일로 발송

2. 전형일시 및 장소

2017년 3월 11일(토) 10:00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습실(실기 및 면접 전형)

3. 합격자 발표

2017년 3월 15일(수) 14:00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bscc.go.kr) 공고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년 2월 27일(월) ~ 3월 8일(수) 17:00 까지(토·공휴일 제외)

※우편 접수 2017년 3월 8일(수) 17:00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홈페이지 다운로드), 재학(졸업·휴학)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다. 접수처

· 방 문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우 편 :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우:48534)

5. 활동특전

· 부산시립교향악단 객원 단원 출연 우선 기회 부여(수석지휘자 추천 시)

· 공연수당 및 소정의 교통비 지급

· 우수단원에게 오케스트라 협연 기회 제공

· 방학 중 음악캠프 참가

· 해외 및 타 지역 순회연주 참가

문의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3117)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신규단원 모집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서는 부산 문화예술 창달의 주역이 될
 참신하고 유능한 신규단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① 모집부문 및 전형내용

모집 인원 : 20명 내외

부문	전문특기단원	초등학생	중학생
지원 요건	무용(댄스), 연기, 악기 등 특기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합창단 연습에 참여 가능한 자	예비반에서 일정기간 훈련해야 하며, 이후 연주반에서 활동 가능한 자 (반주는 본 합창단 반주자가 함)	기존 합창단에서 활동한 자로 연주반으로 활동 가능한 자 (반주자 동반 가능 / 면접 시 정기공연 참여 프로그램 지참)
요강	연주, 연기로 표현할 수 있는 실기(자유형식, 3분 내)	- 푸른 산 푸른 들(진동주 곡, 라장조) - 하늘나라 동화(이강산 곡, 사장조) - 섬마을(계훈복 곡, 바장조) 중 1곡 택	한국, 이태리, 독일가곡 중 1곡 선택 (이태리, 독일가곡은 원어로 가창)
지정곡 : 산유화/이현철 곡(소프라노 음역으로)			
공통	1) 애국가 1~4절 외워서 부르기 2) 음역 및 음감 테스트 3) 자기소개하기		
특전	· 소정의 교통비, 간식비 제공 · 연주에 관련된 연주복 및 단체복 제공 · 우수단원 부산광역시장상 등 표창 · 외부공연 참여시 소정의 공연수당 지급	· 성악, 작곡, 뮤지컬, 무용, 피아노 등 특기 자율 교육 제공 · 봉사시간 부여(찾아가는 공연 참여 시) · 해외 공연 참가(우수단원 우선 참여)	
연습 일정	· 주 2회 연습(연주반 - 화, 목요일 / 예비반 - 월, 수요일 / 주중 - 전문특기활동 자율실시)		

※ 악보는 원서 접수 시 수령가능

② 전형 일시 및 장소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18일(토) 10:00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추첨에 따라 개인별 실기 전형 후 부모와 함께 면접 전형 실시

③ 합격자 발표

합격자발표 : 2017년 2월 27일(월) 14:00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공고

④ 접수 및 전형

응시원서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다운로드

접수기간 : 2017년 2월 1일(수)~2월 16일(목) 17:00까지 접수분

접수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10, 3170~1)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재학증명서 1부, 사진 2매

⑤ 문 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10, 3170~1)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국악관현악단·합창단·무용단·극단) 기획공연, 정기연주회, 특별연주회를 보다 편리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종류 및 특별혜택



VIP회원

연회비 10만원
초대권 8매 | 기획공연 4매, 예술단공연 4매
할인매수 6매(공연당)
특별혜택 지정된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최대 관람료의 다음 좌석부터 지정 예매 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 예약)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50%)**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무료주차권 10매(유료 시행시 제공)



스페셜회원

연회비 5만원
초대권 4매 | 예술단공연 4매
할인매수 4매(공연당)
특별혜택 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 예약)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무료주차권 6매(유료 시행시 제공)



예술단회원 | 교향악단 · 국악관현악단 · 합창단 · 무용단 · 극단

연회비 3만원
초대권 2매 | 예술단공연 2매
할인매수 2매(공연당)
특별혜택 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 예약)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무료주차권 4매(유료 시행시 제공)
 ※ 비가입단체 회원 예술단공연 입장료 10~20% 할인

※ 단체가입 할인 :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7일)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회원카드 제시, 음료 등 제공)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우송, 공연정보 제공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20%)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측 협의된 공연에 한함)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매월 1회 추첨, 여행일정 변경될 수 있음)
- 무료주차(해당공연 당일-유료 시행시 제공), 제휴업체 할인 등(제휴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부산문화회관은 부산시민의 소중한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좋은 공연, 좋은 만남으로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

가입신청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 | www.bscc.or.kr | 051-607-6075
※ 홈페이지 가입 : 인터넷(무료)회원 등록 후 마이페이지에서 정기회원 전환, 유료결제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예금주 : (재)부산문화회관)

방문신청 부산문화회관 사무동(2층) 홍보마케팅팀

관람권 예매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수령 정기회원 카드 또는 예매확인증 지참(매표소 제시)

주의사항

입장권 예매취소는 공연 하루 전 17:00까지 가능(당일 취소 불가능)
입장권 예약 후 가상계좌(기간내 입금) 미입금 시 예매 취소
정기회원(유료) 가입 5일 이후 취소 불가능

문의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TEL. 051-607-6075 FAX. 051-607-6079
*평일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신청서

인적사항	성명		아이디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주소	자택		
		직장		
E-mail				
가입구분	VIP회원	<input type="checkbox"/> 연회비 10만원, 초대권 8매(기획공연 4매, 예술단공연 4매), 할인 6매(공연당)		
	스페셜회원	<input type="checkbox"/> 연회비 5만원, 초대권 4매(예술단공연) 증정, 할인 4매(공연당)		
	예술단회원	<input type="checkbox"/> 교향악단 <input type="checkbox"/> 국악관현악단 <input type="checkbox"/> 합창단 <input type="checkbox"/> 무용단 <input type="checkbox"/> 극단 <input type="checkbox"/> 연회비 3만원, 초대권 2매(예술단공연) 증정, 할인 2매(공연당)		

*단체가입 할인 : 20명이상(10%), 30명이상(20%), 50명 이상(30%)



공연시간에 쫓겨 힘드신 적 많으시죠!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주변 안내도입니다.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하는

Friendly Concert



2017.2.24(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입장료 | 균일 2,000원 예매 | 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문의 | 607-3110, 607-3170~1

☎ 서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방향 100m "7번가 피자" → 앞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공연있는 날에 한함)



2017 부산시립극단 배우 워크숍

누구니, 난?

예술감독 **곽종필**
작 / 연출 **황창기**

2017년 2월 10일(금)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주 최 |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주 관 |  부산시립극단

입장권 | 무료 문 의 | 607-3123(부산시립극단)

예 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선착순 예매)

대 상 | 7세 이상

2017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카이와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스[♥]킷 발렌타인

2017. 2. 14. (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Valentine's
Day



지휘 백윤학



바이올린 이문경



클래시컬 크로스오버 앙상블 인치엘로

사회 카이



부산시립교향악단



모두가 누리는 생활속에
화승의 기술이 숨쉬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물론 신발ODM과 무역,
화학과 소재의 미래산업까지-
화승의 기술은 항상 당신 가까이 있습니다.
이제 화승은 분야를 넘어, 세계를 넘어
세계의 화승으로 한번 더 크게 도약합니다.

사람과 기술을 잇는 글로벌-화승



- 자동차부품


- 소재


- 화학


- 신발ODM


- 종합무역

